

제주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매거진

2021 봄

VOL. 30

# 드림제주 21

DREAM JEJU 21



제주지역 항방불명 희생자  
위령비

기획특집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 濟州養老

## 제주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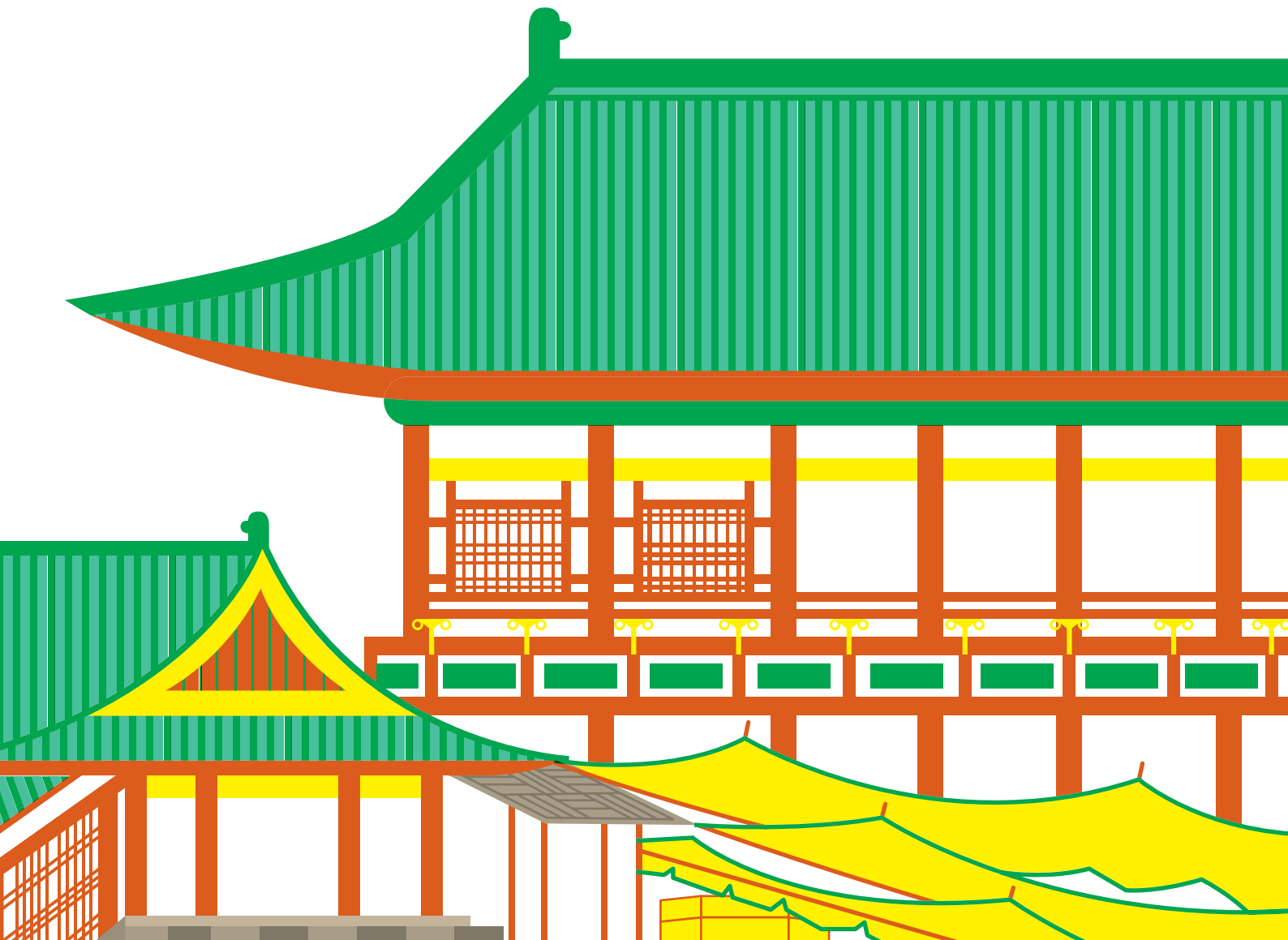




1702년, 제주 목사 이형상은 봄, 가을로 나누어  
제주목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양로연을 베풀고 노인들의 좋은 말을 들어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수령과 관료의 중요 직분이었습니다.

장자자유(長者慈幼) 유자경장(幼者敬長)이라는  
사자소학(四子小學)의 글귀처럼  
예나 지금이나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 사람을 사랑으로 위하는 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기운이 움트는 봄,  
다가올 가정의 달을 맞아 존경과 공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항상 도민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도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 재고(再告) - 남매상봉기념비

김경훈

1993년 <통일문학통일예술>로 등단.

시집 『삼돌이네집』, 『그날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 『까마귀가 전하는 말』, 『강정木시』 등.

산문집 『낭푼밥 공동체』, 희곡집 『소옥의 노래』 등. 제주작가회의 회원.





1.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가 산에 숨었다는 이유로 끌려가 죽고  
큰오빠는 6·25사변에 심어당 바다에 들이쳐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 없던 둘째 오빠가 살았젠  
북한에서 우리 보고싶덴 허는 편지가 왔젠 험디다  
경한 양말도 몇 켤레 사놓고 갈 걸로 준비해신디  
그냥 딱 중단되어수다 남북이 공공 얼어붙지 안해수파

2.

우리 식구들이 북한으로 가서 둘째 오빠를 만났습시다  
22세에 이별한 오빠를 만나보니 백발이 성성한 80세  
오빠를 만나 번창한 가족들과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식구들 이름을 비에 새겨 묘 앞에 세우노니  
벅찬 감격과 기쁨만 간직하고 극락왕생하기를

3.

이제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늙은 오빠와 내가  
언제 같이 이 무덤가에 와서 절을 해질 건고예?  
어머니!  
아버지!



## 4·3은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의 가치입니다



우리 도민은 해마다 봄이 오고, 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제주의 4월은 우리에게 슬픔이고 억울함이고 통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제주에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도민 여러분에게 제주에 비로소 봄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6일은 제주4·3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배보상과 특별재심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옥지 형무소로 끌려갔다 한국전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이 행방불명이 됐던 335명에게 7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심 재판은 불과 10여 분 만에 마무리되었지만, 지난 72년간 무너지는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았던 4·3 유족의 눈물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4·3 당시 군사재판이 증거가 없는 ‘불법 재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재판은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남은 2,000여 명의 수형인 유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일괄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난 시간 동안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를 면담하며 국회에서의 통과를 약속받았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받아냈고, 국회 앞을 찾아 1인 시위 활동을 벌이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 26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도민의 한과 피맺힌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한 단초가 이제야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제주4·3 완전 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3의 해결은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인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생명과 인권이 유린됐던 근현대사의 아픔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는 통과된 개정안을 기반으로 제주의 아픈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겠습니다.

제주에 새봄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CONTENTS

## 드림제주21 DREAM JEJU 21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행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좌남수

발행일 2021년(봄호 통권 제30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329

편집인 문경진 사무처장

편집 공보관 오태현, 미디어팀장 양운학, 김형미

디자인·인쇄 모그크리에이티브솔루션즈 064-757-0523



〈드림제주21〉 구독신청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시면 〈드림제주21〉 구독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드림제주21〉의 정기구독은 홈페이지([www.council.jeu.kr](http://www.council.jeu.kr)/의정활동/의회간행물/소식지 신청) 또는 전화(064-741-2285)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소식지 드림제주21에 실린 내용물의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기획특집

- 04 **사진과 시**  
재고(再告) - 남매상봉기념비
- 06 **발간사**  
4·3은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의 가치입니다
- 10 **기획특집 1**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즈음하여
- 12 제주에 새로운 봄이 왔다
- 16 제주도의회 4·3 발자취
- 20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24 4·3특별법, 그리고 제주도의회
- 28 **기획특집 2**  
도민 중심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도의회는 지금

- 34 의정 모니터
- 39 알기 쉬운 생활법률
- 40 연간일정
- 42 의정 칼럼  
제주 교육에 던지는 화두
- 44 코로나19, 농업인에게도 희망을
- 46 서귀포의 미래를 그리다
- 48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조화로운  
제주자치경찰 실현



제주를 느끼다

- 50 문화곶자왓  
별빛이 내려앉은 냇가에서  
'평화'를 꿈꾸다
- 54 노포기행  
당신의 늙은 추억을 수리해드립니다  
대양전파사
- 58 제주와 환경  
큰희색머리아비는 왜  
해빈으로 올라왔을까
- 62 현장속으로  
'제주환상자전거길'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
- 64 걸어서 제주 한 바퀴  
섬 속의 섬 가파도를 가다
- 70 제주 속 제주  
"명승호텔을 아시나요"



제주를 탐하다

- 74 소담만담  
끓은 마음의 상처가  
드디어 별을 찢고 바람을 쐬는 곳,  
4·3 트라우마 센터
- 80 제주의 사계사미  
제주 드르의 노다지, 고사리
- 84 제주어 산책  
당산봉에 신 삼반석은  
어떻게 생긴 돌이고?
- 86 탐라순력도로 읽는 제주  
제주양로를 중심으로
- 88 신(神) 나는 탐라  
꽃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
- 92 탐나는 탐라  
제주 초가의 집줄 놓기
- 94 독자설문

"언젠가 이 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에 즈음하여

지난 2월 26일, 20여 년의 숙원이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 3월 16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4·3과 관련해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무고한 335명의 수형인 모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비로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시작되었고, 왜곡되고 아픈 과거사 문제 해결의 영킨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누워있는 백비에 제주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울 그 날이 다가움을 짐작케 합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애초 특별법 제정 초기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라는 벅찬 순간을 맞이하기까지의 기록들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뒤따라야 할 후속 조치들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 제주4·3평화공원 백비(白碑)

그간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

아직도 제대로 된 역사적 규명과 올바른 이름을 얻지 못해

아무런 이름도 새기지 못한 채 누워 있다.

©제주4·3평화재단



## 제주에 새로운 봄이 왔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 전면 개정  
특별법 전면개정 도민 보고대회 개최

73년 전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3·1절 기념식이 열렸던 관덕정 앞마당에서 제주에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렸다.

3월 5일 오전 10시 관덕정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제주4·3유족회 주관으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대회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도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을 비롯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정연순 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등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힘을 모은 민·관 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오임종 회장은 제주에 “새봄이 왔다”고 선언했다. 오 회장은 감사의 인사를 통해 “4·3의 도화선이 된 관덕정, 이 자리에서 제주에 새봄을 알리게 돼 기쁘다. 모두가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4·3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해원해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4·3유족회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힘을 모아준 각계각층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고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춘회 유족회 부회장은 “새봄이 오는 듯 하다”며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강 부회장은 또, “4·3희생자인 할아버지의 무고함이 재심을 통해 밝혀져 당시 숨진 남동생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신고도 동시에 해야겠지만 동생이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기록만이라도 남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4·3유족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난 70여 년간 가슴 속에만 묻어야 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실을 기뻐했다.

좌남수 의장은 “맺힌 응어리를 푸는 단초가 이제야 마련됐다. 4·3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사건”이라며, “의회는 보완입법 등 전면 개정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원희룡 도지사는 “4·3의 새로운 역사를 도민과 함께 가슴속에 새기는 자리”라며 “4·3을 연결고리로 삼아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고 화해, 상생, 평화, 인권이라는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제주에 새봄이 활짝 피었다”며 “4·3은 ‘살아있는 사람 살린다(살다 보면 살게 된다)’만 되풀이하며 견뎌야 하는 현실이었지만 한 걸음씩 진전해 ‘이제야 말할수다(이제야 말한다)’로 승화했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민 보고대회

4·3특별법 개정이 통과되기까지 7,718일 여가 소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양조훈 이사장은 “4·3특별법 제정 당시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면 개정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4·3 영령이 도와줬다. 4·3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과거사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전했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도 “이제야 73년 전 4·3의 아픔을 이야기 못 한 채 가슴에 품고 눈감은 4·3 영령 앞에 제주의 진정한 봄이 왔다고 조금이나마 말할 수 있게 됐다. 제주 4·3을 화해와 상생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나가는 길에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허영선 4·3연구소 소장은 ‘법 앞에서’라는 시를 낭독했다. 보고가 모두 끝난 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다 같이 만세를 외치며 4·3특별법 전면 개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 ① 관덕정에서 열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민 보고대회
- ②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민 보고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 ③ 4·3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는 참석자들



③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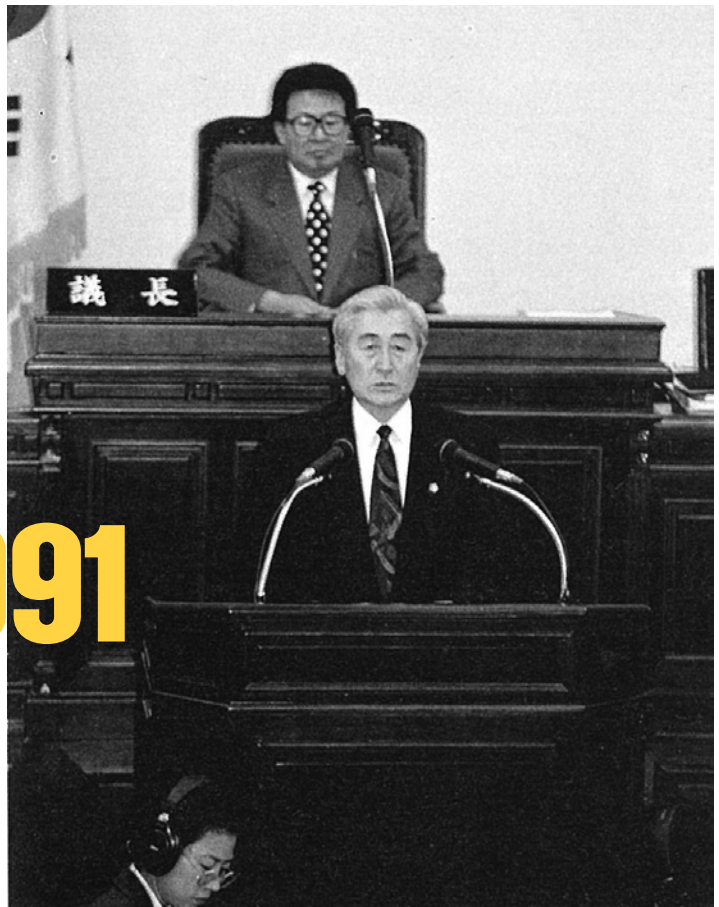
개정안 통과를 통해 들여다본

## 제주도의회 4·3 발자취

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도의회에서 4·3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1991년 12월 17일 30년 만에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제69회 정기회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도정질문을 통해서였다. 본 특위위원회 위원인 양금석 의원이 4·3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및 도민화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에 당시 우근민 도지사는 “4·3은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하며 도의회에서나 민간단체에서 화합과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 된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그 후 1992년 4월 2일 의원 간담회시 4·3문제가 거론되어 “4·3 44주년을 맞는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

1991



1991년 도의회에서 처음 4·3에 대해 발언하는  
양금석 의원

# 1994



1994년 '4·3피해신고 접수처' 현판식

4·3관계기구설치 준비위원회는 이런 의견수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1993년 2월 19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특위 구성을 가결하였다(1993년 3월 20일).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4·3에 대한 성격규명이 안 된 것을 감안하여 '4·3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회 정수는 7인으로 했다.

4·3특위가 구성되자 특위에서는 어떻게 4·3의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선 “4·3의 역사적 진상을 규명하고 이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여 이에 따른 각종 조치 (정부나 국회 차원의 위령사업 전개)를 취하도록 하여 도민화합을 이룩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정하고 원칙은 첫째,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화합을 이룩할 것, 둘째, 4·3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제1단계 기초조사, 제2단계 4·3역사 정립, 제3단계 도민화합 방안 마련 등의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6대 의회에서 도의회 주도로 1999년 4월 제주4·3해결 촉구를 위한 전국 홍보 및 국회방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순례를 통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을 시작하였고, 순례단은 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2000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 1999



4·3홍보 거리행진(대구 동성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제주4·3이 발발한지 50여 년 만이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제주4·3평화공원조성이 되었고, 마침내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유족과 도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2006년에는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참석하여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항상 도의회는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4·3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에 서명하고 있다.

# 2000





2006년 4·3위령제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이러한 노력은 2013년 8월 2일 4·3희생자 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와 상생선언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기로 합의하면서 도의회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4·3특별법이 70여 년 질곡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주지역 국회의원, 유족회, 도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끝까지 4·3특별법을 외면하였고, 이를 위해 도의회는 2020년 6월 15일 전국 1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치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하여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온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2020년 7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재발의 됨에 따라 우리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의원들의 노력한 결과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 및 전국 13개 광역의회, 3개의 기초의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 4·3특별법 통과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여·야 원내대표 및 대표면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 의원이 함께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4·3특별법 통과에 따른 국민적 바람은 21년 2월 26일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제주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 전국 지방의회 의원, 4·3평화재단, 4·3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대승적인 협력을 해주신 여·야 정치권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옛 서대문형무소 대형태극기  
앞에 선 4·3특위





#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과 8월 10일(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에 발의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 ②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의원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늦춰서는 안 될 과제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합의사항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

### 반드시 처리되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강연호 부의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현길호, 문종태, 김대진 의원 등은 1월 28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 “4·3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도민과 함께 환영”

좌남수 의장 등 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서 1인 시위 총력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 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이날 오후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길고 힘들었던 당정과 여·야간의 논쟁이 드디어 대화와 타협으로 매듭짓고, 본회의 통과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며 “희망의 소식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원희룡 지사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로부터 국회통과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국 14개 시·도의회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또 4·3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좌남수 의장은 “이제 남은 것은 본회의 통과”라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제주4·3 완전해결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아픔의 역사가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도의회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풀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기자회견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

73년이 흐른 지금도 제주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온 마을사람이 상주가 되어 제를 올립니다.

냉전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됐고, 억울한 옥살이로 고통 받았습니다.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희생자가 많기에 기다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오늘은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야를 비롯한 정당과 정부, 전국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로 일으켜 세워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제주4·3은 연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특별법 조문별 실천계획을 마련해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주4·3이 비극을 넘어 인권과 정의의 역사를 여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4·3특별법, 그리고 제주도의회

글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소위원장  
제주작가회의 회장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옛 주정공장(동척회사)터에  
세워진 조형물

제주4·3 73주년을 앞두고 지난 2021년 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처음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미진한 4·3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서 헛수로 22년 만에 또 하나의 계단 위로 올라선 것이다. 그 감격을 함께 하고자 3월 5일에는 제주시 관덕정 마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가 열렸다. 4·3발발의 도화선이었던 1947년 3·1절 발포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다. 이 자리에는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4·3문제해결에 앞장섰던 당시의 장정언 의장과 그 후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4·3의 문제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현직 좌남수 의장이 함께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누구를 공치사하고자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던 만큼 ‘함께 만든 4·3특별법 개정! 참된 봄의 시작입니다’를 알렸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돌이켜보면 제주도의회는 4·3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게을리하지 w.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자마자 당시 임명직 도지사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부터 4·3해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3년에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를 상대로 4·3특별법 제정 청원에 나서면서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이를 위해 대만 2.28사건의 입법해결사례를 배워오기도 했다. 1994년부터는 공식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3희생자 조사에 나섬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4·3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당위성을 역설해나갔다. 물론 그 이후에도 4·3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노력은 이어졌다. 모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속적인 청원과 건의,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위해 국회의사당을 들락거린 횟수가 스물세 번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4·3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라면 현수막을 들고, 빨간 조끼에 어깨띠를 두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4·3유족과 단체,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합세한 거도적 국회 방문단을 꾸려 국회의사당과 정당의 중앙당사를 방문하여 4·3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거창사건 묘역,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역, 명동성당 등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호소하였다. 결국 4·3으로

- ① 목시물굴 4·3유적지를 설명하고 있는 필자  
② <제주도 4·3피해조사 1차 보고서>와  
필자의 4·3조사요원증과 수첩







③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개최된 '4·3특별법 제정기념 제주도민 한마당' 모습( 1999년 12월 27일)  
④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 4·3문제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2017년 4월 19일)

인한 20세기의 억울함을 새천년이 오기 전에 풀어달라는 4·3유족과 제주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1999년 12월 16일,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장을 통과하는 의사봉 소리가 천정을 진동했다.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여 제주시 신산공원에서는 '4·3특별법 제정 기념 도민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새천년의 서막을 여는 복음처럼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이 공포되고 그에 따라 4·3진상조사, 4·3평화공원 조성, 대통령의 사과, 추념일 제정 등 4·3문제해결의 많은 진척이 있었지만, 4·3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마음 한구석 짓누르는 돌덩이가 있었다. 그게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문제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일이었다. 4·3 70주년(2018년)이라는 정주년을 앞두고 4·3유족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4·3특별법 개정을 외쳤다. 제주도의회는 오히려 그 이전부터 4·3특별법 개정 문제를 포함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에 밀도 있게 접근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고, 그해 7월에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주도의회가 4·3문제해결의 노정(路程)에서 뒷전에서 관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까닭은 제주도의회를 거쳐 간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차원의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10만에 이르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부름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홀할 수 없는 책무가 버팀목이 되었던 까닭이다.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찮다. 4·3특별법 개정 도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좌남수 의장은 “이제 제주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며, 제주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애의 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는 한편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생명과 인권이 유린됐던 수많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제주4·3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4·3문제해결의 진척으로 인해 자칫 자만에 들뜨거나 성과주의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아직도 한반도에는 해방공간이나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을 기다리는 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짚어낸 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대표적 사건인 4·3문제해결을 견인해 온 제주도의회의는 전국 지방의회의 망형 격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20세기에 저질러진 역사에서 어디 4·3만 아프고 4·3만 억울했던가. 🍵



- ⑤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모습(2017년 7월 25일)
- ⑥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2017년 12월 19일)
- ⑦ 제주시 관덕정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2021년 3월 5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 도민 중심 정책철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단장



행정시장 임기를 기존 2년에서 기존 4년에서 늘려 직선제를 도입하고, 영리병원 도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도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0여 일 동안의 검토와 논의 속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는 지난 1월 7일 출범식을 갖고, 1월 21일과 2월 3일 중간보고를 거친 후, 2월 9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상황인 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부개정은 차등 분권을 강화하고 산업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지

심산일출봉에서 바라본 제주





못한 무늬만 특례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발전 견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최종 110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정책 분야별 정책 방향으로 '총칙(도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 특별자치 분권강화(도민 자기결정권, 도의회 기능, 정책 기능적 분권, 자치재정권) - 국제자유도시 조성 -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로 분류해 과제를 정리했으며, 특히 신규 과제는 약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정치철학과 정책목표 및 위계를 결정짓는 총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운영의 목적으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으며,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기존 경제가치 최우선 일반도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재정립했습니다.

특별자치 분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특별자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특별자치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정부 의사결정에 종속되는 하향식·소극적 권한 이양에서 당당히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대등한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강화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도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7개 특행기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통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어갈 계획이며, 국제자유도시조성과 관련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중심에서 제주의 종합·균형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정책적 지향점을 전환했고,





- 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중간 점검회의가 2월 3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② T/F 활동을 통해 총 110개의 과제가 발굴됐다.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제주를 인지하고 오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4·3의 세계화 등 지방 공공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 등 국가가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산업육성 및 균형발전 강화 분야에서는 특별자치 실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산업발전과 균형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기간산업인 관광산업과 1차산업은 제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이 국가계획과 연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급등하는 골프장 요금을 공적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일상화로 해외 스포츠 전지훈련 수요 흡수 등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의지를 별도의 절 신설과 스포츠 진흥특구 지정 등으로 설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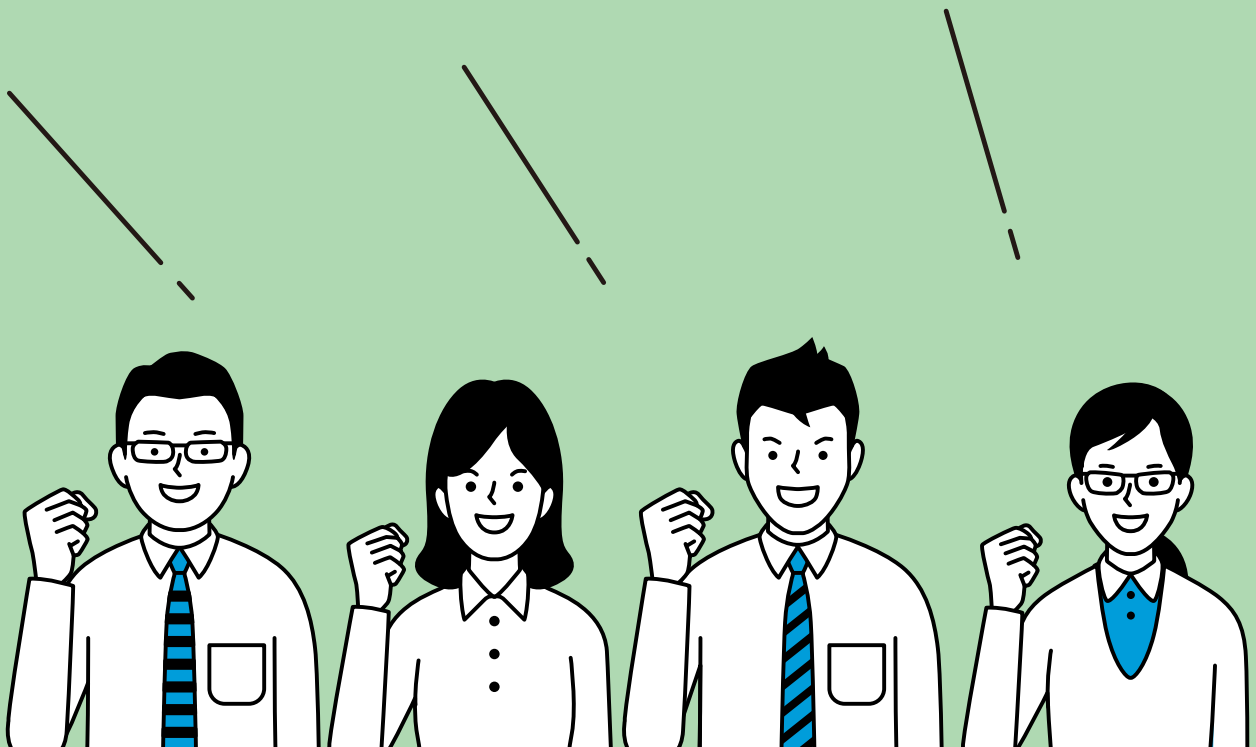
또한, 현재의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을 탄소없는 섬 정책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와 뉴딜정책, 4차산업혁명 정책 등을 연계한 종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산업도 기존의 ‘기반조성’ 패러다임에서 ‘산업육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정부 계획을 하나로 연계한 종합계획을 도에서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및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민사회의 커다란 갈등을 일으켰던 외국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및 도민 설문조사를 같이 하면서 과제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도의회는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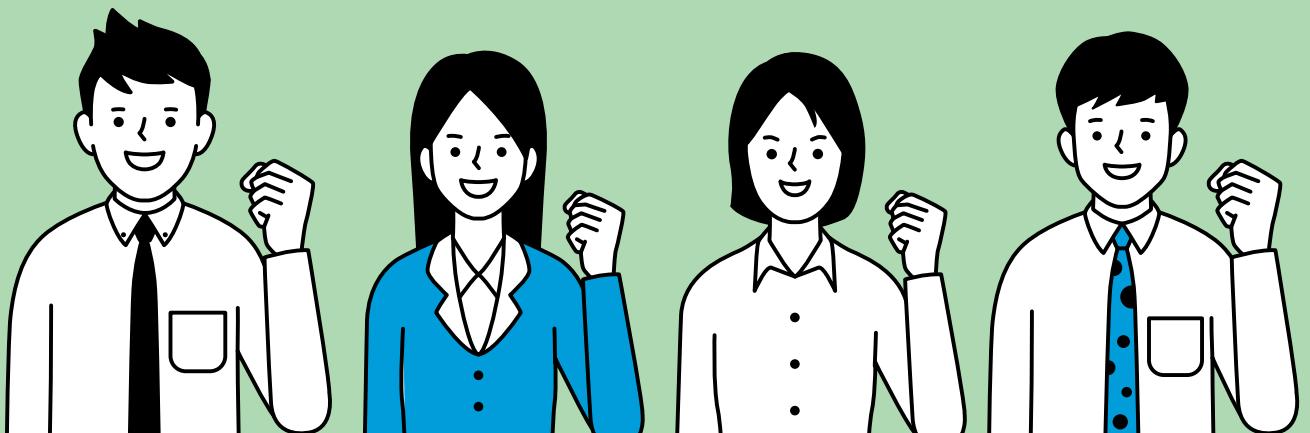
의정 모니터

알기쉬운 생활법률

연간 일정

의정 칼럼

현장 속으로





## “도의회와 제주도는 도민통합 이뤄야 할 의무 있다”

제392회 임시회 개최,  
제주도·도교육청 등 업무보고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월 22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도민이 내린 의견은 겸허히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도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이라는 오직 하나 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국토교통부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통합 없는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는 도민통합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소중한 의견을 표해 준 도민에 감사하다”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업무 보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빚어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안전과 복지를 밑바탕으로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꽃피워 나가겠다”며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모든 힘을 다 하고, 대한민국 교육 제1의 과제인 ‘평가 혁신’의 희망도 충실히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도교육청,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 “제2공항 도민여론 조사 검허히 존중해야”

## 제392회 임시회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월 22일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검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좌남수 의장은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는 민생을 우선 회복시키고, 갈등이 아닌 도민화합을 통해 희망적인 미래 도약을 위해 한 해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은 검허히 존중한다”며 “그 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이라는 오직 하나 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좌 의장은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 도민 화합 없인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는 도민통합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함께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빠르고 강한 특단의 경제 희생 백신이 필요하다”며 “우선 각종 조례나 지침에 우리 스스로 발목 잡는 규제는 없는지 과감히 규제 완화조치라도 해 속도감 있게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분야가 따로 없고 도와 의회가 따로 없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여건과 국비확보도 비상”이라며 “재정투입의 경제적 회생 효과를 감안해 제주형 뉴딜사업을 비롯한 국비확보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70여 년간 도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이 남아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 “제2공항 여론조사, 정쟁으로 갈등 부추겨선 안돼”

김희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 제2공항, 코로나19 방역대책,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고 평가한다”며, “찬성·반대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 도민의 걱정·불안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제주형 뉴딜을 통해 6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발표 시점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기획했는지,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등 상세 내역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주형 뉴딜이 제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하기는커녕,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해서도 “제주도정이 경제·방역 두 가지를 챙길 의지가 부족해 경제보다 방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성적표는 사실 초라하다”며 “지사가 뒷전으로 둔 민생경제는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선 “또다시 ‘과제 발굴식’ 제도개선으로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대동제 등 행정체제 개편, 주민총회, 의원 정수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주만의 고유의 자치제도 설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제2공항 갈등해소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해야”

오영희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오영희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의회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오 의원은 우선 “지난해 제주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돼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다”며 “원희룡 도정이 신성장산업 분야 업종에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규모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경우 민간분야 투자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며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에 대해 “도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원 지사가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만을 발표한 것은 지나치게 소심한 대응이 아니냐”며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 지사께서는 수용하실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4차 재난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제주세무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한시적으로 2018~2019년까지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 지급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피해 대책 세워야”

오대익 교육의원,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

오대익 교육의원은 2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교육부문 반영이 미흡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진이 도시계획·건축·교통 전문가로 구성돼,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 부합한 지 의심스럽다”며 “제주의 성장 동력에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제시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제주지역의 만 5세까지 유아 중, 1~4세까지의 유아는 거의 10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관리가 용의한 편이지만 만 5세 어린이는 93.5%만 취원하고 있어 미취원 유아 430여 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지 낱낱한 상태”라며 “조속한 소재파악과 함께 이 아이들이 관리사 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국제학교 추가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학교 교육에 있어 등교·대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됩니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며, 검역환경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등 검역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검역법」의 개정을 통해 검역체계를 개선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검역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이 검역감염병으로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의2).
- 운송수단별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정함(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검역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4조).
- 검역소장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때 시각적인 매체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함(제29조의6).
- 검역감염병 전파 방지 등을 위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

※ 감염병의 예방 등에 대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 11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 상임위 6일 | • 결산검사위원 선임      |
| 공휴일 3일 | •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 9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6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상임위 2일   | • 현장방문 등      |
| 토·일요일 2일 |               |

###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 11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6일 |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 상임위 3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공휴일 2일 | • 현장방문 등      |

### 5월 제395회 제1차 정례회 5.20.(목) ~ 6.1.(화) / 13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임위 4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예결위 3일 | • 현장방문 등      |
| 공휴일 4일 |               |

### 6월 제396회 임시회 6.15.(화) ~ 6.30.(수) / 16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 상임위 5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예결위 5일 | • 현장방문 등      |
| 공휴일 4일 |               |

###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 8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임위 4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공휴일 2일 |               |

### 9월 제398회 임시회 9.7.(화) ~ 9.14.(화) / 8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상임위 4일 | • 현장방문 등      |
| 공휴일 2일 |               |

###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 23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행정사무감사      |
| 상임위 15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공휴일 6일  | • 현장방문 등      |

### 11~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 31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6일 |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 상임위 8일 | • 2022년도 예산안   |
| 예결위 9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공휴일 8일 | • 현장방문 등       |

###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 7일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본회의 2일 |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임위 1일 |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 예결위 2일 |               |
| 공휴일 2일 |               |

### 계 10회 - 총137일

| 의사일정    | 총137일        |
|---------|--------------|
| 본회의 28일 | • 정례회 2회/47일 |
| 상임위 55일 | • 임시회 8회/90일 |
| 예결위 19일 |              |
| 공휴일 35일 |              |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13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 여러분과의 소통의 장



## 토론회



제주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전문위원실별 소관 업무에 대한 현안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의 활발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 인터넷 방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도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개·폐회식, 상임위원회별 회의상황,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생중계 및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회의록 열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회의록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드림제주21 등 소식지 발간



제주의 주요 이슈를 담은 계간 '드림제주21'과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월간 '도의회광장'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와 계간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도의회 공보관실 064-741-2285

## 의정자료센터



의정자료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전 행정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열람 및 대출, 정책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 문의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064-741-2305

## 제주 교육에 던지는 화두



글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사회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협업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을 꼽고 있다.

그런데 미래세대도 현세대와 마찬가지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동시에 삶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즉,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핵심역량들에 대한 이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는지, 학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동의를 할 수 없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생수가 급감하여 학습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체제로 재구조화하는 것, 둘째, 미래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 변화의 속도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변화를 촉진하고 선도하는 것, 셋째, 새로운 사회와 경제구조에 따른 교육격차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 체계의 구축의 필요성에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넷째, 인공지능이 상용화되는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학교 교육의 기능 및 모습에 대한 정의 내리기 등의 미래교육 과제들이 던져져 있다.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미래교육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며,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패러다임을 만들고 지능정보기술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제주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정에 제주교육의 미래비전을 잘 녹여내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추진과제들이 잘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전담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교육청 내외의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 새로운 시각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바탕이 되는 컨설팅 운영 등 전략적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다.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룸으로써 올 한 해 제주교육이 미래교육의 반석을 놓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



# 코로나19, 농업인에게도 희망을



글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난 1년 동안 온 도민, 온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이 무너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으며, 특히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가 농업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초유의 학교급식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판로에 애를 먹었으며, 화훼농가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 소위 대목이 사라지면서 힘들게 키워낸 꽃을 폐기하였고, 각종 지역축제들도 취소되면서 지역 특산물의 판매가 급감하였으며, 가뜰이나 기대했던 감귤가격마저 소비 부진 등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 집중호우와 한파, 폭설 피해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의 상태가 되었다. 특히, 지난 1월 6일부터 5일간 도 전역을 덮었던 대설 및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6,319ha에 이르고 있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 1차산업의 한축을 담당했던 축산농가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해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설 연휴 제주지역을 덮치면서 근심이 더 해지고 있다.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우려가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분야가 코로나19의 피해산업이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제한돼 농산물 소비위축은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쉽지 않아 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영농 차질도 걱정스럽다.

특히,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은 기존 판매망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농업분야에 대한 소외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된다.

필자는 우리 제주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잃지 않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고 본다. 이미 외국산 농축산물로 상당 부분 시장을 내어주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경영비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피해가 더 누적된 만큼,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요청과 함께 그동안 적립해온 농업분야의 기금 등 도의 자체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 서귀포의 미래를 그린다



글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14년 일본에서 화제를 모은 신간이 있다. 국내에도 소개된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고령화와 물가 하락(deflation)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화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소멸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현재 서귀포는 다른 지방 도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하며, 기업이 부족하고, 1차산업 종사자와 저임금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불안정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지역 사정상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개 산하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논란이 있다. 이 지사는 21일 “쇠퇴해 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 배려, 더 많은 기반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산점과 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 할 이유가 없다”며 잘라 말했다.

지방소멸의 우려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나 역시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는 정당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제주 시와 서귀포시는 제주 전체를 이끄는 두 축이다. 한 축이 흔들리면 제주 전체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서귀포시의 발전이 제주 전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이유다.

도정의 조직개편이나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 비율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엄격한 잣대로 재단되기보다는, 제주 전체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1년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서귀포시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더 획기적인 정치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조화로운 제주자치경찰 실현



글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지난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경찰개혁 등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훨씬 폭넓고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어 경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수사권과 정보권이라는 두 권한을 한 손에 쥔 경찰에 대해 '경찰공화국'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은 권력 분산이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분산시키고자 정부에서는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의원화모델로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조직·시설 비용 문제로 인해 일원화 모델로 지난해 말로 경찰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걸쳐 7월1일부터 정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 교통·방범시설 개선 등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의 결합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 15년간 자치경찰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행정과 치안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학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조성'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자치경찰의 치안역량이 결합된 자치경찰제도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도를 포함 17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제주도를 포함한 일부 타시·도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조례안 입법예고 된 내용을 두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행안부와 경찰청이 각 시·도에 배포한 표준 조례안 내용 중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도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청 입장 서로 다른 형태로 일부 조문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은 중립적 합의체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 관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되기 전에 운영·조직 구성에 있어서 제주도와 경찰청이 다른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은 자치경찰제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현 상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신설되는 조직안에 대한 검토과정이 제주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과 지역치안이 서로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푸른 제주 하늘을 배경으로 설치된 제주 평화를 상징하는 제주국제평화센터 심볼 상징물





## 별빛이 내려앉는 넋가에서

## ‘평화’를 꿈꾸다

글 김형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팀

‘베릿내’는 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 하류의 성천포를 말한다.  
‘별빛이 내려앉는 넋가’라는 뜻이다.  
제주의 이름들은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평화롭기도 하고 말이다.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지난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이를 상징하는 시설로서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건립됐다. 2006년 개관한 이후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홍보, 전시 교육, 체험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 ‘평화’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면서, 어쩌면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욱 박사.

‘평화’를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평화를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홍보하고, ‘평화’라는 가치가 항상 가까이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제주국제평화센터의 평화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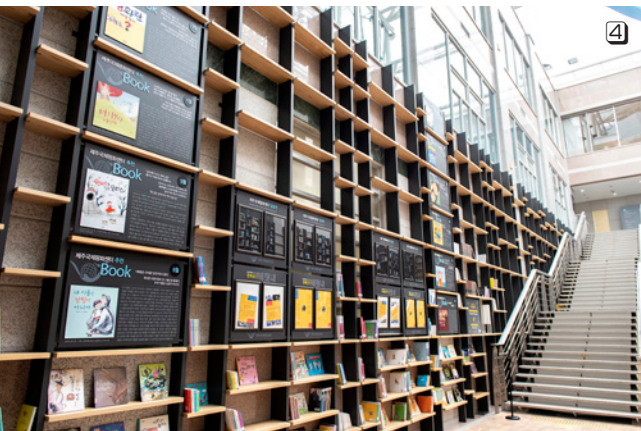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베릿내’로 이름을 짓고 아이들을 기다리는 곳이 만들어졌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공간에 지난해 만들어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평화’를 주제로 약 3,500여 권의 도서가 갖춰져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다.

‘베릿내’라는 명칭도 공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으며, ‘BOOK새통’을 기획해 연중 평화 도서 기증 나눔 이벤트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 그리고 제주를 찾는 기관,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BOOK새통’은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북새통’에 책의 영어명 ‘BOOK’을 합성한 단어로 베릿내가 많은 사람이 찾아 함께 책을 읽으며 ‘평화’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뿐만 아니다. 연중 기획전시는 전시 기간이 종료되어도 센터 홈페이지의 ‘언택트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항상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작가에게는 더 지속적인 작품 홍보의 기회를, 관람객들에게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여러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올해는 ‘평화’ 이미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작은 갤러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도내 작가들, 특히 전시공간이 필요한 졸업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도내 음악인의 작은 콘서트를 통해서도 평화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특히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전시하거나 공연을 할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에 제한이 있어 전반적으로 공연산업은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예술인들을 보듬어야 하는 것이 큰 과제다. 평화센터의 ‘죽은 갤러리’가 상처를 보듬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1991년 10월, 제주국제협의회는 ‘평화와 번영의 제주’를 주제로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평화의 섬은 첫째, 제주도의 비무장화, 둘째,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 셋째,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센터화와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 넷째, 평화의 섬을 행동화하는데 능동적이고 지역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제주도민, 다섯째, 평화의 개념과 일치하는 균형되고 분권화되며 자생적인 발전을 위한 장소로 개념화했다.

공론화의 첫 시도로 1998년 2월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실천전략 세미나에 이어, 2000년 1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세계 평화의 섬’ 지정조항이 신설되었다.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방문에서 정상의 집 건립이 건의되었고, 제주국제평화센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6년 개관한 것이다.

- ① 제주포럼
- ② 김대중 대통령 밀랍인형
- ③ 세계를 잇는 다리
- ④ 베릿내의 도서 진열은 아이들이 쉽게 다가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 ⑤ 제주국제평화센터로 들어가는 길 ‘제주평화현장’이 새겨진 기념비에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선명하다

현재 제주국제평화센터에는 제주평화연구원,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포럼 사무국이 들어서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교육하는 구심체로써 더욱 거듭나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당신의 낡은 추억을  
수리해드립니다.

## 대양전파사

글 강진희 작가

모든 것이 귀했던 우리네 옛 시절에는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그것에 따르는 타당한 이유와 사건이 있어야만 했다. 가령 첫 졸업 선물이라든지, 결혼 혼수라든지, 생애 처음 장만한 집을 채울 물건을 새로 사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생의 큰 축복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물건 중에 단연코 가장 큰마음을

먹어야 했던 것이 가전제품이다.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고, 시중에 있는 돈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면서 거기에 대담한 마음마저 보태야 마침내 전자제품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아무리 하룻밤 사이에 붕어빵이 나오듯 새로운 가전제품이 날마다 등장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의 오늘이라지만, 어찌 주인의 큰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전자제품을 한낱 소소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

1단 버튼이 유독 때가 묻은 엄마의 오랜 선풍기에서 엄마의 전기세 염려와 절제하는 삶이 보이듯, 요즘 소비자 마음을 읽는다는 AI 로봇보다 어찌먼 오래된 물건이 우리 가족과 나를 더 잘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주인과 함께 늙어가면서 낡고 빠걱거리고 마침내 고장이 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추억하는 메커니즘이 멈춘 것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듯 동네 전파사로 아픈 전자제품을 데리고 가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동네 어귀 그 어디쯤 하나씩은 있었던 전파사를



지도상의 몇 안 되는 귀한 점을 헤아리며 큰마음을 먹고 찾아 나서야 한다. 2년 전에 오랜 노트북의 충전케이블을 사러 제주 시청 인근에 위치한 대양전파사에 들린 적이 있었다. 뭘 사야 할지 망설이는 나에게 사장님은 확신을 갖고 많은 케이블 선 중 하나를 내밀어 주셨다. 정확히 맞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확신은 나에게 마

침내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때, 물건을 보지도 않고 부품을 내주는 사장님의 확신과 여유의 근원은 반백 년 가까이 한 분야에 종사한 외길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나는 알았다.

대양전파사의 황종훈 대표는 보성시장 옆에서 처음 전파사를 10년 넘게 하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후 30년 넘게 전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크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가운데에 합판을 넣고 공간을 쪼개 한쪽은 전파사를 나머지 한쪽은 부인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전파사를 하면 처음에는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남편은 고치는 것에만 몰두하지, 사업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가게의 도움이 되고자 분식집을 시작했는데, 저 역시 사업성이 그리 있지는 않네요”라고 부인이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옆 분식집으로 이어진 경계선에 서서 수줍게 말을 건네며 웃으신다.

“저는 원래 1970년대 경에 제주에 왔습니다. 관덕정 앞에 별표 전축 대리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파견된 서비스 기사로 제주에 처음 오게 된 것이지요. 그 당시 제주도에서는 특히 여자분들이 첫 봉급을 받아서 사는 것이 전축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전축 바늘이라든지 곳곳에 손 볼 것이 틈틈이 생기기에, 전축 수리 전문 기사를 하면서 제주에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제주시에서 한 달에 2번은 서귀포에 출장을 다녀왔지요. 차가 없고 버스가 귀했던 시절이라 교래리 같은 곳에 수리하러 한번 들어가면 버스시간 때문에 2~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나올 수 있었어요”라고 황중훈 씨의 오래전 젊은 수리기사 시절을 회상하였다.

“저는 원래 김두한이 놀던 동네인 종로 바닥이 고향이지요. 저가 살던 집주소가 지금은 경복궁 안내소가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깐 거부감 없이 제주가 체질적으로 맞았어요. 편안해서, 본적지까지 다 제주로 옮겼습니다. 저가 오랫동안 사는 이곳 제주가 이제는 고향이지요.”

긴 세월의 간격 사이사이에는 변화되는 물건만큼이나 변화하는 손님들이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의 손때가 묻어

있으니 고쳐 쓸려고 하고, 젊으신 분들은 반반입니다.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만일 고친다고 하면 단가 먼저 따집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돈을 부쳐서 새것을 사는 게 낫다고 하면 고쳐서 쓰지 않아요.” 나이 드신 손님들과는 시간과 물건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의 삼박자가 잘 들어맞아야 알 수 있는 오랜 물건의 가치를 함께 공감할 수 있다. 물건을 고친 후에도 고마운 정도가 그 물건의 애정도와 비례하기에 더 큰 울림을 준다고 한다. 연세가 지극한 어르신들이 유독 아끼는 애장품 중에 석유화로가 있는데, 지금도 그 물건만큼은 꼭 들고 와서 고쳐 쓰신다고 한다.



전파사와 분식집을 나란히 기대어 운영하고 있는 황중훈·이주연씨 부부

이렇게 40년 넘게 대양전파사의 문턱을 드나든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제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에 직접 만든 전축을 들고 오셔서 수리를 맡기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계셨어요. 부인의 혼수 중 하나였던 전축을 부인을 먼저 보내고도 부인과 함께 사용했던 그 전축을 아끼셨던 그분의 안부가 문득문득 궁금합니다. 아직 살고 계시면서, 그 전축에서 음악을 듣고 계시는지? 지금이라도 연락이 닿아, 허락된다면 그 전축을 사서 저가 소장하고 싶습니다.” 손님과 물건의 안부를 둘 다 걱정해야 하는 전파사 수리공이다.

“사실 가장 속상한 것은 요즘은 전축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외제 물건이 수리로 들어오지만, 부품이 없어서 알면서도 못 고칩니다. 시간과 함께 고칠 수 있는 물건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알면서도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는 전문 수리공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고친다는 표현보다



버리고 새로 산다는 말을 더 자주 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소비성만을 지향하며 값싸고 다양한 신제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게 쏟아져나오고, 대기업 전자회사들의 서비스가 전화 한 통으로 연결되는 21세기의 편리한 세상은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 황중훈 씨는 부품들을 한 번에 보면 그 제품을 알아보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별로 남지 않은 현실에 아쉬운 탄식이 이어져간다. 이제 제주도 내 전파사를 열 손가락으로 세도 손가락이 많이 남는다.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 난방기구 정도가 지금 전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불어 가정집에 전기 출장 정도의 일로, 종류가 3, 4개로 줄어든 실정이지요. 하지만 지금도 하루의 10통의 수리문의 전화를 받습니다. 배운 게 이것밖에 없고 아직은 젊기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겁겁이 부품이 쌓인 테이블 오른쪽에 놓인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아직도 쓰고 있

다고 보여주신다. 주인공의 신뢰와 추억이 듬뿍 서려 있는, 늘 오른팔처럼 황중훈 씨와 함께 든든하게 일해 온 기계이다. 황중훈 씨를 만나고 대양전파사를 나오는 길에 젊은 두 청년이 식당용 튀김기계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봄이다! 집안에 오랫동안 차갑게 식어있는 고장 난 물건을 다시 꺼내 봄의 온기를 새롭게 불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 걱정과 계산은 내려놓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물건을 들고, 대양전파사로 발길을 돌려보자! 당신의 낡은 추억은 수리될 것이다. 🏠



황중훈 대표가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쓰던 아날로그 테스터기



## 큰회색머리아비는 왜 해변\*으로 올라왔을까

\*해빈(海濱, beach) :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발달한 모래나 갯벌, 가는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물이 쌓인 지형

글 / 사진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이학박사

남극에 사는 펭귄은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늘 바다 속에서 생활하는 새다. 다른 새들과 달리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한다. 대신 바다 속을 비행하며 먹이활동을 한다. 다리도 꼬리 가까이에 있어서 육상에서 걸어 다니기가 불편하다. 제주에 찾아오는 철새 중에 아비류는 펭귄처럼 온종일 바다에서 지낸다. 제주에는 4종이 찾아오는데, 지난달 성산포 광치기 모래밭에 큰회색머리아비 두 마리가 었드려 있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해야 할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름 떼에 오염된 큰회색머리아비 두 마리가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광치기 해변에 올라와 있다.



봄이 오면, 멀리 시베리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걱정이다. 성산포 바다에서 함께 겨울을 보내는 뿔논병아리, 귀뿔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가마우지의 자맥질을 보니, 큰화색머리아비의 모습이 더욱더 애처롭다. 왜 올라왔을까. 바닷새들은 간혹 깃털이 기름 때에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깃털의 방수 기능이 떨어져 몸이 무거워져서 물 위에 떠 있거나 잠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아마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고생하는 것이다. 어선에서 버린 폐유나 사고 선박에서 버려진 기름이 연쇄적으로 가마우지, 아비, 논병아리, 바다오리 등의 물새들의 깃털을 엉키게 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 나온 폐유, 플라스틱, 비닐, 낚시와 낚시줄, 드럼통, 페타이어, 유리 등 각종 오염물에 의해 조류뿐만 아니라 톳과 우뚝가사리, 소라와 고둥, 쥐치, 붉은바다거북, 남방큰돌고래도 위협해지고 있다. 2년 전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아름다움 너머’ 기획전에서 등장하는 알바트로스의 배 속이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진 장면은 충격이었다. 당시 생태예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크리스 조던은 버려진 소비재 플라스틱들이 제주도는 물론 지구의 환경문제와 기후변화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렸다.

알바트로스의 번식장소인 미드웨이는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사실 그 섬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보다는 해류를 따라 모인 플라스틱이 해안을 덮고 있다. 플라스틱이 알바트로스 배 속으로 가기도 하지만, 등지에도 가득하다.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자, 플라스틱을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플라스틱이 바다나 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칫 먹잇감으로 오인해서 이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본능마저 상실할까 걱정이다.

지난 2021년 2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은 미드웨이에서 1956년 가락지를 채워진 알바트로스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한 장면을 확인하였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섬에서 아직 살아남아 희망을 품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낚시줄에 걸려 희생된 재갈매기가 모래 해변에 묻혀 있다.



중국 연안에서 밀려온 갯생이모자반과 인간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세계지질공원 수월봉 검은 모래 해변에 쌓여있다.



제주섬이 그렇다. 제주 사람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들, 진짜 버린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양 쓰레기의 처리를 제주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할까. 밀려오는 쓰레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쌓이면서, 화산재층 위에 새로운 층서가 자리 잡을지도 모른다.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인류의 힘에 생김 달갑지 않은 지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의 연안과 바다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어업인은 물론 청정 제주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혜택은 인류 전체가 더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제주는 신생대(약 6,500만 년 전 ~ 현재) 제4기(170만 년 전 ~ 현재)에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층서학적으로 아주 젊다.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집단 거주한 시점은 마지막 빙기가 끝나는 약 1만 년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시대인 홀로세(Holocene, 現世)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홀로세가 쇠퇴하고 인류세(Anthropocene, 공식

채택되지 않음)가 도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인간 문명에서 파생된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 더미가 지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가 사냥, 농경, 집단 거주생활을 시작하며,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위협받고 있다. 이미 세상에는 호모 인포메티쿠스(Homo Infomaticus, 정보화 인간),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 인간), 호모 디카쿠스(Homo dicacus, 디카족), 호모 모빌리쿠스(Homo mobilicus, 모바일 인간), 호모 플라스티쿠스(Homo plasticus, 플라스틱 인간) 등 신인류의 후손들이 활보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에 의해 자연이 회생되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을 존경하는 만큼 큰회색머리아비와 재갈매기 죽음에 대해서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증가 속도 이상으로, 선사시대부터 축적되었던 제주인의 본성과 정체성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이러다가 젊은 화산섬도, 큰회색머리아비의 청춘도, 아이들의 꿈도 밀려

해안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회색기러기의 부리 주변에 작은 스티로폼 조각들이 붙어 있다.







수십 년 전에 버린 버린 녹슬은 쇠파이프를 비롯해 병뚜껑, 유리파편, 나일론, 소라껍질,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가 모래속에 퇴적되어 층을 이루고 있다.

오는 파도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과거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지만, 이제는 인류가 자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배려 깊은 지원을 해야 한다.

화산섬 제주도가 지질지대의 지층과 화석 그리고 인류세의 플라스틱층을 동시에 보존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자산을 보유한 세계자연유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망하다. 어쩌면 오명으로 더 유명해질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여행 온 관광객뿐만 아니라 큰회색머리아비에게 오해라고 항변하기 전에, 다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내가 버리지 않은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기엔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고쳐먹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당장 잃을 것도 많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생물종다양성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거창한 관점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주 시대를 대비하기 위

해서라도 언제든지 새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주섬은 큰회색머리아비도 제주사람도 이방인도 불편해하는 인류세(人類世)를 걷어차 버리고, 다 같이 부담하는 인류세(人類稅)를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한다. 쓰는 만큼, 먹는 만큼, 버리는 만큼, 누리는 만큼 상황에 따라 조금 내지는 엄청나게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인류세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성산포에 왔던 큰회색머리아비가 해변으로 올라오는 대신에 오대양 육대주를 여행하면서 인류세의 당위성을 퍼뜨려 주지 않을까. 큰회색머리아비가 인간이 버린 쓰레기 섬이 아닌 인류세를 내는 제주섬에서 힐링하는 모습을 곧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오영희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환경개선' 조례 개정 대표 발의  
**‘제주환상자전거길’**  
**관리 소홀로**  
**유명무실**

혈세 350억 원이 투입된 제주환상자전거길이 관리 소홀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15일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에는 2010년부터 시작돼 2015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58억 원이 투자돼 현재 제주환상자전거길이 234km가 개통돼 있지만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길, 횡단보도와 미연계 등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자





전자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도민의 권리와 책무 등이 추가됐다.

한편 오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과 지난해 관계 동호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제389회 도정질문에서도 자전거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다.

지난해 7월 가진 간담회에서는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인 및 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 홍보 캠페인 실시 ▲관광객 대상 자전거 코스 개발 ▲학생 자전거 보관소 확충 ▲자전거도로 홍보 부족 개선 방안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 지원 방안 ▲폐자전거 처리 문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됐다.

오영희 의원은 “자전거 단체 및 동호회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반기 의정활동 중 자전거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희 의원은 “제주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비롯해 10여 년 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체계화된 인프라조차 너무나 부족하다”며 “자전거 인프라에 걸맞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제주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직접 자전거를 타고 확인하며 발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된 제주시 한림항 일대를 보여주며 “조금 관심만 가진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청정자연을 만끽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 즉 웰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유일한 생태방역이 필요 없는 도로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바로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녹색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활성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



보이는 모든 것이  
시선보다 낮게  
드리운 섬

# 섬속의 섬 가파도를 가다

글 / 사진 편집부

나만의 미뤄둔 숙제를 마무리할 요량으로 길을 나섰다. 몇 년 전부터 꼭 한번 가보리라던 가파도와 마라도 여행 중 이번 목적지는 가파도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한참을 살았건만, 여태 가파도와 마라도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접했을 뿐, 가볼 기회가 없었다. 아니, 기회라는 게 따로 누군가에 의해 허락되는 게 아니기에 그저 스스로 미뤄왔을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라도 가파도행 정기여객선에 내 몸을 실었다는 것과 잠시 후면 목혀뒀던 숙제의 첫 장이 펼쳐지고, 비로소 한 장 한 장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가장 낮은 섬 가파도, 가장 처음 섬 가파도

가파도를 방문하기 전, 조금이나마 사전 정보가 필요하겠다 싶어 여기저기서 가파도에 관한 정보를 찾던 중 재미 있는 몇몇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가파도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유인도라는 것과 제주도가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된 계기가 되었던 섬이라는 것이다.

가파도의 해발고도는 20.5m에 불과하다. 바닷가 모래 위에 지어진 5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섬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인 셈이다. 그나마 어느 한 곳 특별히 솟아오른 데 없이 섬 중앙을 향해 낮은 경사로 서서히 높아지는 지형이라 눈앞에 보이는 대부분이 평탄하다. 섬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바다둘레길의 총 길이는 4.2km 정도로 걸어서는 2 시간이 채 안 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30분 이내에 섬 한바퀴를 둘러볼 수도 있다.

가파도라는 지명은 섬의 전체적인 모양이 한껏 날개를 펼치고 헤엄치는 가오리(가파리, ‘가오리’의 제주 방언)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낮고 넓은 지형이 덮개 모양을 닮았다는 데서 따온 ‘개도(蓋島)’ 또는 ‘개파도(蓋波島)’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데, 1653년, 제주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선박의 선장 헨드릭 하멜이 ‘하멜표류기’를 통해 제주도를 ‘캘파트(Quelpart)’라고 표기했는데, 처음 표류했던 장소인 가파도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제주도와 우리나라가 서양에 처음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섬 속의 섬 가파도행 정기여객선

제주 본섬에만 있다 보면 섬이라는 느낌을 잊을 때가 많은데, 제주 섬 속의 섬들을 방문하면 비로소 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도민뿐 아니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을 찾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파도로 가기 위해선 유일한 교통수단인 정기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운진항에서는 하루 여섯 번 가파도로 향하는 정기여객선이 출항한다. 운진항에서 가파도 상동포구 선착장까지의 바닷길은 약 5km 정도, 여객선으로 채 15분이 걸리지 않는다. 여객선의 한정된 정원 때문에 운진항 출발 시각에 따라 섬에서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로 문의(064-794-5490)하면 된다.



## 도보나 자전거나 그것이 문제다

가파도의 상동포구 선착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데, '가파도터미널카페'다. 여객선터미널과 쉼터를 겸하고 있는, 그냥 보기엔 단순한 회색 시멘트 구조물이지만, 뭔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다. 다른 아닌 '가파도 터미널 gapado terminal'이라고 써어 있는 벽에 붙은 인테리어 표지가 주는 감성은 가파도의 전부를 보여주는 듯했다. 수평선 위로 마냥 낮은 섬, 그 위에 작은 건물 하나. 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낸 채, 섬을 찾은 방문객에게 한없는 여유와 쉼을 선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터미널 바로 맞은 편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고민이다. 섬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도보로도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다만, 입출항 시간에 따라 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2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어서, 일정이 빠듯하면 자전거를 이용해 둘러보는 것도 추천한다.

그래도, 이왕 걸어서 섬 한 바퀴를 목표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겨보자.



## 가파도 어디까지 가봤니? 다 가봤지!



### 가파도 등대와 무인등대카페

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동 포구의 등대와 가파도 여행 중 잠시 쉬며 여유로움을 더할 수 있는 등대카페. 카페에서 바라보는 등대의 전경이 일품이다.



### 어멍, 아방 돌(개엄주리코지)

섬을 한 바퀴 다 돌 때쯤 '개엄주리코지'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개의 큰 바위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어멍, 아방 돌이라고 부른다. 이곳 역시 사람들이 올라가면 파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바위에 올라가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두 개의 바위의 향해 절을 올리는 듯한 바위의 형상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는 자식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마음을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치유의 언덕, 태봉왓과 그 옆에 자리한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인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AiR)는 국내외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이다. 작가들의 개인 숙소뿐만 아니라 작업실, 갤러리, 테라스 등 작가들의 예술 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시설이 있다.





### **청보리밭**

어느덧 청보리는 가파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얼핏 봐도 섬의 절반 이상을 청보리밭이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전에는 최남단 섬 마라도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드문 작은 섬에 불과했지만, 청보리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들이 생기고 올레길이 조성되면서 일 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닷일에 바빠 농사일에 신경 쓸 새가 없던 탓에 씨만 뿌려 놓으면 잘 자라는 보리농사가 유일한 해답이었지만, 지금은 섬만큼이나 낮은 가파도의 돌담과 보리만큼이나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었다.

2009년부터 매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열렸던 청보리축제가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아쉬움이 크다.



### **소망전망대**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20.5m)에 2.5m 높이로 설치한 전망대다. 제주 본섬과 마라도, 푸른 바다뿐만 아니라 6개의 산(한라산, 산방산, 송악산, 군산, 고근산, 단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명소다. 매년 도민의 무사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한라산을 향해 설문대할망에게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이다.



### **회을 김성숙 선생상과 가파초등학교**

가파초등학교는 학생수 8명의 작은 시골학교지만, 가파도 출신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이 1922년에 설립한 '신유의숙'을 시작으로 올해 개교 100년을 맞이하는 역사 속 명소다. 김성숙 선생은 1919년 기미독립운동에 참여, 투쟁 중 검거되어 옥고를 치른 뒤 귀향하여 가파 신유의숙을 설립해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고,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으로 민주정치에도 헌신했다.



## 가로수길과 벽화마을길

가파도 중앙길 중심에 위치한 가파초를 지나면 바로 가로수길과 벽화마을길이 이어진다. 가파도를 대표하는 우선회 작가에 의해 그려진 벽화들에는 가파도의 역사와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다. 벽화에 그려진 가파도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가파도 여행이 될 것이다.



## 가파도를 떠나며

못내 아쉬운 발걸음이 여행센터미널 앞을 맴돌게 한다. 지금 가파도를 떠나면 언제 다시 올까 싶은 마음에 한 컷이라도 더 가파도의 전경을 담으려 욕심을 내본다. 한편으론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 찾은 가파도 여행이었다는 초심이 맴도는 발길을 붙잡기도 한다.

‘그래, 언제면 어떨까? 꼭 다시 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고 다시 오게 될 테니. 가파도야 또 보자.’

마음속으로 다시 올 것을 기억하는 사이 어느새 선착장에는 배가 닿아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제주스러운 곳, 가파도’에 올 수 있어 오 늘은 참 좋은 날이다.

## 가파도 가는 길

### 대정읍 운진항에서 가파도 정기여객선 타기

#### •운항항 출발(평일 기준)

오전 9시, 11시, 오후 14시(마지막 배)

#### •가파도 출발(평일 기준)

오전 11시 20분, 11시, 오후 14시 20분, 16시 20분  
(마지막 배)

### 자전거로 둘러보기

가파도터미널 앞에서 빌릴 수 있다.

1명당 요금은 시간 제한없이 5천 원이며

30분이면 섬 한바퀴를 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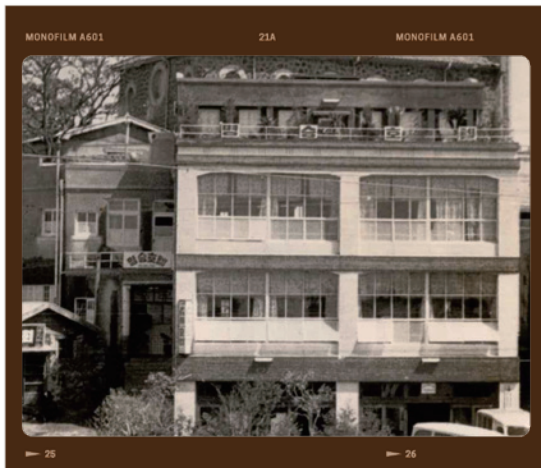


## “명승호텔을 아시나요”

글 / 사진 **고영림** (사)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장



제주는 섬이다. 제주도민이 비행기를 타고 쉽게 육지로 드나들 수 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다. 그전에는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항구 중심 도시였던 제주시는 공항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된다. 1970년대부터 제주도의 여러 기관과 학교들이 제주시 원도심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인구가 제주시 원도심 남쪽의 신시가지와 신제주로 이동하였다. 이는 도시개발과 확장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변화였으나 원도심의 쇠퇴와 공동화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래된 공간 원도심에는 시간의 더께와 함께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 오래된 것이 지닌 힘이자 매력이다. 원도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21세기에 부여된 원도심의 가치와 역할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명승호텔 건축초기 전경과 현재 모습.  
낡고 쇠락한 모습이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보여준다.

제주시 원도심 동쪽에 흐르고 있는 산지천을 따라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다. 빛바랜 분홍색 외벽과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타일을 보면 분명 오래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산지천변 동쪽에 있는 건물로 절벽 바로 아래 지어져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진다. 제주시 원도심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명승호텔' 건물이다. '명승호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이 건물이 제주시 원도심에 들어서게 된 배경, 오래된 건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궁금해진다.

산지천 동쪽, 제주기상청 바로 아래 자리하고 있는 명승호텔 건물은 빛이 바랜 모습이지만 60년 전, 1960년대 초에 타일로 외관을 장식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파괴되어 없어진 제주중앙교회(옛 제주유치원) 건물이 명승호텔 바로 뒤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승호텔은 196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에 5월에 슬래브 평지붕을 완성했고 1962년 3월에 준공되면서 호텔도 개업하였다. 무려 6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아직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건축물 하나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제주시 원도심의 20세기 일상사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공간에 담겨 있는 기억과 추억이 공유되면서 세대 간 소통의 매개가 되어 주고 감동은 더 깊어진다.

명승호텔이 순수 제주 자본이 투자된 최초의 현대식 호텔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보면 창립자의 도전 의식과 선구자적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 제주 경제사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인 고춘호 사장(1926년~2006년)이 명승호텔을 짓고 경영했다. 사업적 안목과 함께 추진력이 남달랐던 고춘호 사장은 제주도 최초 공업사인 안전자동차공업사(1953년 '안전모터스'로 창업, 1968년 '안전자동차공업사'로 사명 변경)를 경영



하였다. 공업사 사업이 번창하면서 고춘호 사장은 호텔 경영이라는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된다.

고춘호 사장의 장남 고경진 안전자동차공업사대표(제주상공회의소부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주공항-여의도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하루 두 차례 편성되자 제주도가 관광지로 발전하고 명승지가 되리라 확신한 부친이 직접 명승호텔로 명명했다고 한다. 안전자동차공업사 직원들이 직접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등짐 지고 올려서 나무로 틀을 만든 거푸집에 붓고 철근을 쑤서 넣으면서 기둥과 슬래브 공사를 하였다.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 즉 수공으로 만든 건물인 셈이다. 호텔 준공식 당시 제주북초등학교학생이었던 고경진 대표의 기억 속에는 4층 옥상에서 어른들이 꽃비처럼 뿌려준 사탕과 과자들이 지금도 생생하다.

1층에 임대 해준 중앙공보관제주분관에서는 제주도민 대상으로 대한뉴스 상영 등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공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2층은 호텔 프런트와 객실들이 있었고 3층은 전부 객실로 사용되었는데 한실보다는 양실 즉 서양식 침대를 배치한 객실이 더 많았다. 화장실은 객실 내부에 있지 않았고 숙박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지금 보면 조금도 신기할 일이 아니겠지만 당시로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세식으로 좌변기 화장실이 명승호텔에 설치되었다.

내부계단과 외부계단을 통해 옥상 4층으로 올라가면 천장을 등그렇게 아치형으로 마감한 멋진 별관이 있고 별관을 나서면

넓은 테라스로 이어진다. 테라스에 서면 산지천과 함께 제주시 원도심과 제주항이 파노라마 뷰로 시원하게 펼쳐진다. 1960년대의 스카이라운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층의 별관은 로터리클럽 정기모임과 여러 친목회가 열리는 사교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4층 별관 입구에 조리실이 있었고 호텔의 전속 셰프가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마카로니 등 서양 음식을

제공했다. 커피, 빵, 버터, 마가린 등 식자재는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구해왔다. 특히 4층 테라스에는 철제 깃대 3개가 있는데 중앙공보관제주분관이 1층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이 철제 깃대들은 제주의 현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삼성혈 입구의 돌하르방 2기는 명승호텔 터에 있던 것을 고춘호 사장이 고 씨 종친회총본부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1963년에 삼성혈에 기증한 것이다.



한껏 멋을 낸 내부 기둥과 장식  
공업사 직원들이 직접 지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화려  
하고 정교하다.

명승호텔에는 위문공연 차 제주를 방문했던 한국의 최고 인기 배우들이 묵었다. 제주도 최고급 호텔이었으니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1932년)를 만든 이규환 감독의 영화 '춘향전'(1955년)에서 주인공 춘향 역을 맡아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인기를 누리던 조미령, 부산 출신으로 악역 전담 배우로 유명

했던 조석균 등이 명승호텔에 묵으면서 제주 시내 극장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노래도 불렀다고 한다. 간혹 배우들이 숙박료를 내지 못했어도 고춘호 사장이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했다고 하니 누구나 힘들게 살았던 시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온다. 제주도를 방문한 군 장성들도 숙박했다고 하니 민간영빈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할 수 있다.

명승호텔은 창립자가 경영하다가 1965년부터 임대인에게 경영을 넘기게 된다.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의식과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기에 시작했기에 서비스 인력 양성이나 교육 등 호텔 경영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여러 임대인을 거치다 1990년대에 이르러 명승호텔 건물에서 지속하던 숙박업은 폐업되어 빈 건물로 남겨지게 된다. 그러나 제주의 민간 자본을 자발적으로 투자한 호텔 경영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선도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된 후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승호텔은 같은 자리를 지켜오면서 제주시 원도심의 번성과 쇠락의 과정을 목격해왔다.

쓸쓸하게 비어있던 명승호텔에 새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성호 대표(㈜제주레미콘)가 2019년에 명승호텔 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어린 시절, 명승호텔 정면 왼쪽에 있는 외부 계단을 통해 제주 유치원(옛 제주중앙교회)에 2년 동안 등원과 퇴원했던 고성호 대표가 중요한 결심을 한 것이다. 산지천 인근에 있는 금산물에 조성된 금산생태원(산짓물 원류) 인근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고성호 대표의 추억이 쉽지 않은 이런 도전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원래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서 구조 진단을 의뢰했으나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철거 후 재시공하는 신축을 생각했다. 그러나 지인들로부터 명승호텔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를 전해 들은 고성호 대표는 고심 끝에 방향을 바꿔 보강 시공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심했다. 건축가에게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60년이나 된 노후건물이라 보강 시공부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축가와 많이 소통하면서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지천 서쪽에는 현재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 광장이 조성되면서 집들은 물론 빵집, 세탁소, 목욕탕, 식료품점 등 사람들이 살아오던 공간들이 사라졌다. 일상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졌다. 산지천 동쪽에는 낡고 오래되어 비어있던 건물들이 리모델링되면서 하나씩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라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지켜온 명승호텔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원도심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 봐야 하는 낡은 공간이 아니라 오래된 공간이고 이야기의 매개라는 사실이다. 명승호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주시 원도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꿈꿔보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소환해오자. 🍷



옥상에 있는 별관으로 이어지는 외부계단

\*사진제공 : 고경진 안전자동차공업사 대표 & 제주상공회의소부회장

\*\*영화자료제공 : 김종원 영화평론가 &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임고문







끓은 마음의 상처가 드디어 별을 찢고 바람을 쐬는 곳,

## 4·3트라우마센터

글 / 사진 편집부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 온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자랑 약속해요. 이제는 매일 웃기로.

4·3 유족 김연옥 할머니께 전하는  
손녀 정향신 씨의 메시지

역사적 비극의 순간은 아물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일생이 되기도 한다. 국가의 일시적 부재이든 공권력의 폭력이든, 보호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받은 개인의 상처는 때로는 슬퍼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한 채 마음 겹겹이 꿈꿨다.

가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낙인과 격리 속에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제주인의 4·3의 상처는 그날의 동굴처럼 따뜻한 별 한번, 바람 한 점 쐬지 못한 채 70년의 끓은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다.

98명의 후유장애인, 수형인 34명, 17,369명의 제주4·3 유족의 끓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금의 민주국가의 책임이고 역사적 소임이다.

국가행정안전부는 제주4·3뿐만 아니라 과거 국가폭력으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지난 2020년 5월에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2층에 개소했다. 1년 가까이 지내온 그곳의 이야기를 오송국 부센터장을 통해 들어보았다.



###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설립 배경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주4·3이라는 역사 자체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피해보상과 수형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새롭게 재심을 통해 바로 잡히고 있는 것은 우리 과거사 청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는 민주주의 완성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제주 4·3트라우마센터가 있습니다. 제주4·3을 비롯,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고 그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 평화공동체 구현을 이행해 나가는 곳입니다.

### 4·3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이 센터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제주4·3특별법에는 4·3트라우마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립 트라우마센터로서의 법적 근거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가의 관심이 더 고취되어, 아직은 시범 운영 중인 이곳이 국립트라우마센터로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전문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처음이기에 저희보다 오래된 광주트라우마센터에 가서 많은 자문도 구했으며, 트라우마의 시설구성과 인력에 대해 선행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갖춰나갔습니다. 2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2명의 도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물리 치료사, 2명의 사회복지사와 2명의 기획 총무팀과 4·3전문가 역할로 제주4·3 평화재단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부센터장인 저와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정영은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내 트라우마센터와 제주4·3트라우마센터만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우울증 같은 현대사회의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적 치유와의 다른



① 문학치유프로그램 진행 모습

②, ③ 4·3트라우마센터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1:1 도수치료 프로그램



접근방식으로 그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원인 자체부터가 다른 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패턴을 모색하고 다양한 치유의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아팠던 고통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들어야 하고 경험을 함께한 이들과 함께 서로 공감하고 지지받고 박수를 받아야 하는 시간을 갖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 중 예술치료가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 어떤 마음 치유의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나만의 아픔이 아니었구나!’라는, ‘내 옆에 사람은 더 아팠겠구나!’라는 공감이 교차하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야기 마당’, ‘음악 치유’, ‘원예 치유’, ‘문화 치유’, ‘미술 치유’, ‘명상 치유’, ‘긍정심리 치유’, ‘야외 소풍 치유’ 등이 있습니다. 그 외, ‘1:1 도수치료’, ‘물리치료’, ‘소도구 운동’ 등으로 신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심도 있는 심리 상담 치료도 진행 중입니다.

#### 그중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반응이 가장 좋았나요?

신체 치유 프로그램 중에는 1:1 도수치료가 가장 좋지만, 김수열 작가가 진행하는 문학치유가 의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주 4·3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시를 통해서도, 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지만 문학반에 오셔서 떠들떠들

4·3트라우마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4·3 생존 수형인 박동수 씨







4·3 트라우마센터 예술치료프로그램에서 그린 자화상

당신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데, “4·3 때는 이랬어”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아무리 정부라 해도 그래서는 안 됐어!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이 이야기를 후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어”라는 종착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고통만 억울해하다가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 후세대에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까지 글을 통해 이르게 되지요.

#### 이곳을 이용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곳을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요?

다른 트라우마센터와 다르게 이곳 제주4·3트라우마센터는 개소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직접 자발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루 50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합니다. 작년에 8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누적 방문자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어떤 트라우마센터도 하지 못 한 일입니다. 그만큼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4·3트라우마센터를 기대했고 만족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곳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다가가시는지요?

고령자와 경제적 이유와 신체적 제한으로 이곳을 못 오시는 분들을 먼저 200명 정도 선정하여, 그분들을 위해 매주 월, 화요일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수광?”라는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하지요. 동네의 이장이나 동네 주민들을 통해 4·3으로 인해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조사해가면서, 점점 그 인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분이신지요?

제주4·3 당시,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월평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라산 깊은 숲속에서 2개월 동안 피신했던 기억을 완벽하게 갖고 계세요. 8살이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부모 앞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 말을 못 하고 참으면서 견뎌던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 할머니. 그 분은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한 분씩, 한 분씩 데리고 오셔서

월평리 마을 주민 열 분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의 월평 노인당을 여기로 옮겨 놓으신 분이죠. (웃음)

### 제주4·3의 상처 이외에 제주에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범위는 국가사업 피해자인 강정마을 주민까지 가고 있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양분으로 마을 주민들끼리 싸웠던 마음의 상처는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처라고 여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만나고 하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서서히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작년에 강정 노인회와 부인회에 8회에 걸친 치료 활동을 했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 올해에는 10회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강정마을을 사랑하는 애향이 본성을 바탕으로 짜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인회는 작년 여름에 숲치료를 위한 소풍을 갔는데, 서먹서먹했던 그들이 돌아올 때는 다 손 잡고 왔지요.

### 그 외에 제주에는 어떤 국가폭력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4·3 말고 대표적 국가폭력 피해자는 80년대와 90년대 국가조작 간첩사건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제주4·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4·3 때 일본에 밀항한 삼촌을 일본에서 만나 밥 한 끼 함께 먹고 용돈 받은 개인적 일을 국가가 간첩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왜냐하면, 당시 국가가 한 일에 대한 불신으로 제주도 출신들이 일본에서 조총련활동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제주시 도련동에 '수상한 집'을 만들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수상한 집과 함께 4·3과 강정을 넘어서 국가조작 간첩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세월호 피해자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 트라우마센터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보람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꼭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트라우마센터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 보입니다. 아픔을 지닌 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이곳의 문턱을 매일 매일 방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즐거운 일이지만, 한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센

터가 잘 운영되면 사회 전체가 밝아지고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해외 사례에서 보듯 그 도시의 평화지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4·3을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주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주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이 좀 더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과 계획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아시아에는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여러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 가도 이런 트라우마센터가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되면서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5년 전만 해도 트라우마라는 개념도 없었고,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회적 치료방식의 틀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복지 틀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유족 중심의 치유와 공감을 계속 올곧은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상처받은 더 많은 분께 더 넓고 따뜻한 가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3 트라우마센터 오승국 부센터장





봄,  
할망의  
드르  
**고사리**

글  
편집  
부



4월 초가 되면 제주 전역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는 사람들로 오름과 들판이 북적인다.

### 제주 드르(들판)의 노다지, 제주 천연 고사리

제주도는 4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에 고사리 장마라 불리는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신다. 그 대지에 보송보송 솜털이 난 어린 고사리순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5월까지 제주 전역의 들녘은 지천에서 자라는 고사리로 인해 노다지 밭이 된다. 5월 중순을 지나 초여름에 접어들면 고사리의 잎이 퍼버리거나 줄기가 단단하고 질겨져 식용으로 쓰기 어려운 탓에, 이맘때쯤이면 제주의 할머니들은 이른 새벽마다 고사리 채취를 위해 배낭과 앞치마를 메고 새벽 들녘으로 나선다.

사계절 동안 조상님과 가족들의 입에 들어갈 맛 좋은 고사리는 15cm 내외 정도 키 높이에 아직 잎이 피기 전 동그랗게 말려있는 어린 순을 가지고 있다. 주먹처럼 동그랗게 말린 고사리 솜털 사이사이에 촉촉이 맺힌 아침이슬은 마치 꽃이 핀 듯, 침침한 노인네의 눈에 멀리서도 쉽게 담겨온다. 비록 새벽 열은 어둠을 등에 지고 나섰지만, 발길 따라 계속 눈에 밟히는 고사리를 차마 두고 오지 못해 할머니는 해가 하늘 중천에 이를 때까지 오름 들녘 구석구석을 누빈다.

바지런히 몇 날 며칠을 배낭 한가득 짊어져 나른 고사리를 폭 삶아 독과 떼고 쓴 맛을 제거한 후, 마당 벌에 널어 말려야 하는 할머니의 바쁜 고사리 공정에는 봄의 나른함 따위는 얼씬거릴 수도 없다. 봄 햇살에 바싹 말린 고사리는 독성도 제거되지만, 그 수확의 부피도 야속하게 10분의 1 가까이 쏙 줄어들어 버린다. 그래서 들녘에 고사리는 누구에게나 흔하디흔한 산나물이지만, 할머니의 굵고 거친 손을 탄, 집안에 든 고사리는 귀하다 귀한 음식이다. 이렇게 1년 내 제사와 명절에 쓸 고사리를 집안에 든든하게 장만해두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할머니의 마음에 봄별이 드는 것이다. “고사리 좋은 해엔, 메역(미역)도 풍년 든다”라는 제주 속담처럼, 제주 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좋은 신호는 고사리의 봄 풍년이다.







어떤 요란한 장비 없이, 손가락만으로 고사리 기둥 아래쪽을 잡고 '뚝' 꺾으면, 고사리 채취가 가능하다. 올봄에는 제주 할머니의 부지런함을 조금 닮아보는 것은 어떨는지? 누구에게도 경계선 없는 봄 노다지 들녘에서 주인 없는 고사리의 주인이 마음껏 되어보는 것은 어떨는지?

어떤 요란한 장비 없이, 손가락만으로 고사리 기둥 아래쪽을 잡고 '뚝' 꺾으면, 고사리 채취가 가능하다. 올봄에는 제주 할머니의 부지런함을 조금 닮아보는 것은 어떨는지? 누구에게도 경계선 없는 봄 노다지 들녘에서 주인 없는 고사리의 주인이 마음껏 되어보는 것은 어떨는지?

### 드르에서 자라는 초록 소고기

제주의 오동통한 고사리 즐기는 씹으면 씹을수록 소고기 맛의 고소함과 식감이 입 안 가득 담겨온다. 고소한 맛만큼이나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고사리는 100g당 19Kcal의 열량을 내는 저열량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이상적인 산나물이다. 칼륨과 인이 특히 풍부한데, 고사리를 말리면 칼륨과 마그네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더욱 풍부해진다.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여 피부 미용에 좋으며, 머리를 맑게 하고,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콜레스테롤 감소와 동맥경화 예방과 함께 빈혈 및 골다공증 예방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및 노인 건강에 좋으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다. 면역체계를 활성화하는 다당류와 산성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사리의 비타민 C, B1, B2, 각종 미네랄 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주 고사리는 자연환경의 해를 가하지 않고 들판에 널려있는 천연 초록 소고기인 셈이다. 이런 탓에 제주도에서 나는 고사리는 예로부터 '궤채'라 불리며 임금님 진상품으로 오를 정도로 뛰어난 제주 특산품이었다. 그중 임금께 진상되었던 '먹고사리'는 한라산 자락 계곡이나 습지, 꽃자왈 등지에 빛이 없는 그늘에서 자란 탓에 먹물처럼 짙고 어두운 빛깔을 띠고 있다. 반면 너른 들녘에 광합성을 듬뿍한 '별고사리'는 초록색을 띤다. 제주 고사리는 임금의 입에도 올랐던 출세한 음식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지천에 무성하게 자라는 덕분에 배고픈 제주 민초의 배도 채울 수 있었던 참 다행이고 고마운 제주의 보물이다. 

## ◇ 제주 영양 스프, 고사리육개장 ◇



고사리육개장은 돼지고기를 푹 삶아낸 육수에 고사리와 수육을 잘게 찢어 넣고 보릿가루 혹은 메밀가루를 풀어 묽근하게 푹 끓인 음식이다. 사계절 두루두루 즐기는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이기도 하지만, 특히 봄에 생고사리를 이용해서 고사리육개장 한 사발 툇딱 몸 안에 집어넣으면, 어느덧 봄의 피곤함은 저만치 사라졌을 것이다.

### 만드는 법

#### 재료

돼지 잡뼈, 돼지고기, 생강, 청주, 불린 고사리, 잡뼈 육수, 간장,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 메밀가루, 소금, 고춧가루, 실파, 깨소금

#### 조리과정

- 1 잡뼈와 돼지고기는 차가운 물에 담가 핏물 제거한 다음 끓는 물에 생강과 청주를 넣고 데쳐낸다.
- 2 데쳐낸 잡뼈와 돼지고기에 물을 넣고 푹 끓인 후, 건져 고기를 발라내고 뼈는 물을 보충하여 더 끓인다.
- 3 삶아서 불려둔 고사리와 발라낸 고기, 국간장,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을 넣고 양념을 한다.
- 4 육수에 양념해둔 고사리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다.
- 5 메밀가루와 물을 넣고 개어서 육개장에 넣고 잘 풀어주면서 끓인다.
- 6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그릇에 담아 고춧가루 실파, 깨소금을 얹어낸다.

## ◇ 봄의 향연, 놀(햇)고사리 볶음 ◇



주로 1년 내내 비축해둔 건고사리를 먹지만, 봄에는 호사스럽게 봄의 풍미가 그대로 베어있는 햇고사리로 소박한 볶음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딱딱하지도 않고 물컹거리지도 않는 햇고사리의 식감은 보들보들 부드럽게 생생히 살아서 봄 들녘의 아지랑이처럼 입안에 일렁거린다.

### 만드는 법

#### 재료

햇고사리, 다진 마늘, 국 간장, 멸치가루, 참기름, 깨소금

#### 조리과정

- 1 독성과 이물질질을 빼기 위해, 이틀 정도 물에 채취한 고사리를 담가 둔다.
- 2 냄비에 고사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넣고, 다진 마늘과 국 간장, 멸치 가루와 참기름으로 양념을 살짝 한다.
- 3 양념 된 고사리가 담긴 냄비에 물 1컵을 넣고 뚜껑이 닫고, 끓이다가, 뚜껑을 열고, 국물이 없을 때까지 살짝살짝 볶아준다.
- 4 그릇에 단아하게 담아서, 깨소금을 위에 살짝 얹어낸다.



## 당산봉에 신 삼반석은 어떻게 생긴 돌이고?

글 김신자 시인

제주어보전회 회원

사름덜신디 고향은 영혼 디가 아니카양. 파썩 언 날, 솔넙으로 미지근하게 굴묵진은 구들추룩  
느랑 그러운 것덜이 무음 소곶에 본치?찌 번뜩이 터올랑 가심을 을을호명도 푼두롱하게 멘드는  
디마썸.

메틀전이 당산봉에 올라가난 삼수방이 탁 트인게 잘도 좋습데다게. 히어뜩흔 코로나 돌림벵파  
문이 고망에만 박아전 싯단 간만이 베껏브름 맞이난 오장이 씨원홉데다. 침떡추룩 니귀반뜩하게  
쫄른 고산팽아가 느려다 보이곡, 차귀도광 와도광 용수리 바당으로 잊어지는 풍차 해안도로는  
말로만 곱양은 몰라마썸. 왕 박사 가심이 물작 젓입주. 아는 성광 생이기정질을 걷단 보난 영혼  
주벤에 신 사름도 좋은 풍광이고 이디가 나 고향이로구나 생각호난 춤말로 가심이 을을호명 푼  
드랑호여집데다게. 그 성님은 이디 저디 안 가본 산이 웃일 정도로 산만 타는 사름이우다. 외국  
으로도 저푸게 텅겨노난 산구신 뉘 거 닳아양. 게난 그 성님 다린 몰다리가 뉘엇수다. 경 툃툃호  
기가 잘도 건강홉니다게.

“아시야, 는 복 좋은 중 알라. 당산봉 곱은 좋은 디서 나노난 열메나 좋으니? 나가 이디 저 디  
하간 산엘 텅겨봐도 당산봉 만이 좋은 디가 웃다게.”

영 곱아가명 당산봉을 막 웃주와 줍디다.

나 두릴 적인 당산봉이 영 좋은 딴중 몰랏수다. 메날 지들케 호레만 땡기곡 출 비레만 땡긴디라  
부난 어떻게힌 자게 어룬뉘영 이 바닥을 뜨카 생각만 호명 존뉘주마썸. 꽃이 필 땐 꽃을 보명 즐길  
중 알곡 올매가 돌리민 올매를 보명 즐길 중 알아사 호는디, 꽃이 피어실 땐 올매가 돌리지 안호  
옛텅 봉당봉당호곡 올매가 돌려실 땐 꽃이 호나도 피지 안호옛젠 봉당봉당만 호 시절이랏수다.  
경호난 봉당봉당홀 때마다 씨먹으렌 ‘철 모르는 년’ 이렷 호는 말이 생긴 거 닳수다게.

“양, 성님. 계난 당산봉을 경 잘 알민 삼반석 이왓도 잘 알컨게양?”

“무신 삼반석 이왓? 난 들음이 체얌인다. 당산봉에 할망당은 싯텐 들어봐도 삼반석은 들음이 체얌 들었저게.”

“계난 볼서게. 암만 잘 안텐 햏여도 고망고망 잘 몰릅주게. 이디가 삼반석 아니우파? 나가 삼반석 이왓을 좇곳이 골아주커메 잘 들어봅서양.”

옛날 윤무순이렌 햏 사름이 육질 갓수다. 승년도 지곡 차귀(遮歸)는 굶져 죽는 게 태반이라노난 어뎡 육지라도 강으네 놉이집살이햏멍 얻어먹어보젠 햏엿주마썸.

“는 어디서 온 누게니?”

“예, 난 제주도 차귀(遮歸)에서 온 윤무순이우다.”

“차귀마을에 당산봉이 싯느냐?”

“예. 싯수다. 우리 동네에 이신 산이우다.”

햏 대답햏여가난 계도 햏쓸 머리가 햏리햏 게 이녁 집이 들어왔구나 햏멍 좋아햏엿주마썸.

“당산봉에 삼반석이 싯텐 햏연게마는 그 돌이 어뎡 생긴 돌이고?”

주연이 들으난 그 말곳엔 대답을 낵시 못햏는 거라양. 그 주연은 메날 집안이 앓아둑서 책만 보는 양반이난 당산봉에 이신 건 흰히 다 꺾는 사름이엿주마썸.

“아이고, 그건 잘 몰르쿠다게. 그건 우리 마을에 웃인 거 닐수다. 난 원 삼반석이렌 햏 건 들음이 체얌이우다.”

햏심상햏게 대답햏는 거 보난 주연은 막 용심내멍 햏어뜩햏 동녕바치가 이녁 집이 들어왔젠 햏멍 윤무순을 햏 좇아내 불엿주마썸.

“이놈 쫄두루웨 곱은 도둑놈이로구나. 어디서 동굴단 놉의 집이 기여들어완 그짓칼햏멍 살아보젠 햏느냐. 당장 기여나라.”

차귀도로 돌아온 윤무순은 삼반석이 뭇지 그제사 알게 뒤엿수다. 크고 반반햏 돌 싯을 ‘시돌굽’ 이렏 햏여시민 착 알아먹어실건디 ‘삼반석’이렌 햏멍 막 예려운 한주로 곱아부난 낵시 못 알아 먹엿주마썸. 이녁이 메날 쉼 맥이레 강 노는디라신디, 무식햏연 못 알아먹어부난 젊을 적이 공뵤 안햏 걸 막 햏훼를 햏여서마썸. 계난 사름은 느랏 배와사 햏는 거로구나 햏멍 그루 햏제부뎡 뷔 지란이 공뵤를 햏엿텐 햏디다. 🍵





다시 보는 탐라순력 ①

## 제주양로를 중심으로

글 김오순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사업지원팀 팀장

18세기 제주도의 종합정보사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보물 제652-6호)』에 대한 최근 제주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불씨는 2019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이하 세계유산본부)가 『탐라순력도』의 국보 지정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지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립제주박물관이 탐라순력도 기획특별전을 열고, 세계유산본부와 국보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했다. 국보가 한 점도 없는 제주사회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 여겨진다. 이에 『탐라순력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짚는 연재를 시작한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인 이형상(李衡祥·1653~1733)이 제주를 순력할 때 남긴 기록화첩이다. 1702년(숙종 28년) 봄 부임한 이 목사는 구례(舊例)에 따라 음력 10월 29일부터 11월 말 제주 삼읍을 순시했다. 그는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순력장면 28면을 포함해 총 43면(서문 2면 포함)의 기록화첩을 남겼는데 조선시대 지방순력에 대한 유일한 기록자료로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지정 문화재인 ‘보물’이 되었다. 「드림제주21」에서는 『탐라순력도』가운데 민생을 살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장면을 골라 연재를 시작한다.

첫 장면은 『제주양로(濟州養老)』이다. 코로나19로 지구촌이 가족의 귀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 옛 기록화첩 속 선조들의 삶을 새겨볼 만하다고 생각해 선택했다.

‘양로’는 요즘 말로 경로잔치다. 조선시대에는 양로연(養老宴)이라고 했다. 임금과 왕비가 여는 왕시연회가 있었고, 지방수령들이 베푸는 주현(州縣)연회가 있었다.

이 양로연은 왕이 부형(父兄)에 대한 예의로 모시는 것, 고령으로 은퇴한 관료를 위한 것, 일반서민 고령자를 위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80세 이상의 대소원인(大小員人·문무관, 생원, 진사, 조상공덕으로 관인 자격을 갖춘 자 등), 즉 양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양로연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교화하는 목민관의 기본 책무이자 유교를 통치철학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최일선에 있었던 지방관리의 중요한 업무였다.

이 목사는 이같은 이유로 순력길에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등 3읍을 순력하면서 양로연을 개최한 것이었다.

이번에 소개할 『제주양로(濟州養老)』는 이목사가 제주목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노인들을 모시고 1702년(숙종 28년) 11월 19일 제주목 동헌마당에서 연 경로잔치 그림이다.

이날 노인잔치에는 제주목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3인, 90세 이상 노인 23인, 80세 이상 노인 183인 등 209인이 참석했다. 이 목사가 남긴 제주지리서인 『남환박물(南宦博物)』에 기록된 80세 이상 제주 노인은 모두 243인인데, 이중 대부분이 제주목에 거주했다.

제주의 풍속 중의 하나가 장수하는 이가 많다는 것인데, 이는 제주 한 가운데 한라산이 남쪽 바다의 독기를 막아 주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라산 남쪽보다 북쪽이 더욱 장수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그림을 보면 목민관이 개최한 잔치답게 동헌 뜰 앞에 큰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 악공들이 초청돼 공연을 벌이고 있다. 이 목사는 동헌 앞에 참석 한 노인들을 향해 정좌해 있다. 100세 이상 노인 3인이 제일 상석에 앉아 있고, 그 옆으로 초청된 노인들이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에 앉아 있다.

잔치에는 의례 선물이 주어지는 법. 이 목사는 양로연의 예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에게 노인직(老人職)을 주고 품계를 올려주는 한편 쌀과 의복을 나눠주었다. 1910년 『조선총독부관보』에도 제주노인 81명에게 양로표창을 주고 상금을 준 기록이 남아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도리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지속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지금, 300여년 전 타임캡슐인 『탐라순력도』 속 한 그림은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살뜰히 살피는 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 시대불변의 진리이다.

봄꽃이 만개한 이즈막, 『제주양로』의 현장을 찾아 그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더 할 나위없이 마음이 포근해지겠다. 🍵



## 꽃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

글 한진오 희곡작가

### 생명을 점지하는 여신의 탐스런 꽃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최고신 하늘옥황천지왕은 고민에 빠졌다. 자연만물이 생겨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생명이 탄생했지만 그들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성장에 이르는 자연법칙을 만드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천지왕은 휘하의 많은 신을 불러 모아, 긴 회의 끝에 멩진국따님애기라는 여신이 적임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천지왕의 명을 받아 사람의 탄생과 성장을 책임지게 된 멩진국따님애기는 유유히 지상에 내려왔다가 자신의 역할을 하는 낯선 존재와 만나게 된다. 당연히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마침내 천지왕의 선택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상으로 내려보냈던 멩진국따님애기와 함께 나타난 낯선 존재는 천지왕을 당혹스럽게 했다.

자신은 동이용궁따님애기로 임나라임박사의 명을 받아 멩진국따님애기와 똑같은 소임을 맡게 되었노라고 또 박도박 말하는 것이 아닌가. 동해용왕과 임나라임박사가 멩진국따님애기의 소식을 미처 몰랐던 모양이다. 천지왕은 웬만하면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동이용궁따님애기가 한사코 버텼다. 결국, 멩진국따님애기와 동이용궁따님애기는 천지왕의 시험에 들었다. 긴장 속에 치러진 생명의 성장과 자연법칙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첫 번째 시험에서 멩진국따님애기가 보기 좋게 이겼지만 동이용궁따님애기가 재차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며 강짜를 부렸다. 또다시 벌어진 시험은 꽃 가꾸기 경쟁이었다.



드디어 결정의 날이 밝아 두 여신은 정성스레 키운 꽃을 천지왕 앞에 대령했다. 천지왕과 많은 신이 두 여신이 키운 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먼저 멧진국따님애기의 꽃은 뿌리는 외가닥 뿌리인데 꽃망울은 사만오천육백 송이나 만발하게 피어났다. 이와 반대로 동이용궁따님애기의 꽃은 뿌리는 사만오천육백 가닥인데 시들시들한 꽃 한 송이가 겨우 피어났다. 반박의 여지 없이 멧진국따님애기가 사람의 생명을 점지하고 기르는 삼신할망으로 낙점되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동이용궁따님애기는 멧진국따님애기를 쫓아가며 자신은 애기구덕(요람)을 비롯한 갖난아기에게 쓰이는 물건에 붙어 앓는 신이라도 되겠노라고 선언했다. 자신이 멧진국따님애기보다 먼저 지상에 갔었으니 구삼신할망이라고 불러달라면서, 천지왕도 멧진국따님애기도 끈질긴 요구에 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는 삼신할망과 구삼신할망이 생겨났으니 이 이야기가 바로 ‘멧진국따님애기본풀이’ 또는 ‘삼성(승)할망본풀이’ 등으로 불리는 제주의 신화다.

#### 우린 모두 꽃과 함께 태어났으니

인간 세상에 탄생과 성장의 법칙을 만든 삼신할망은 구삼신할망과의 경쟁에서 키워낸 꽃을 이승과 저승 사이에 심어 서천꽃밭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죽은 이도 살려낸다는 살 오를 꽃, 피 오를 꽃, 뻗 오를 꽃, 숨 돌아오는 꽃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웃음 웃을 꽃, 어떤

것이 삽시에 멸망시키는 수레멜망악심꽃이 피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꽃은 생명을 점지하는 생불꽃이었다. 삼신할망은 이 생불꽃을 꺾어 들고 구름결 바람결을 헤치며 인간 세상에 날아들어 아기를 점지했다. 때에 따라 출산을 시켜야 할 때는 은구세라고 불리는 가위를 들고 지상에 내려와 산모의 탯줄을 잘라주기도 했다. 아이를 점지한 뒤에 서천꽃밭으로 돌아오면 들고 갔던 생불꽃을 단단히 심었다. 그러면 새로 태어날 아이와 그 꽃이 하나의 목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꽃이 활짝 피어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났다. 반대로 꽃이 시들거나 죽으면 아이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되는 하나의 운명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해지는 것 같았지만 이내 삼신할망에게 골칫거리가 생겨났다. 다름 아니라 삼신할망이 인간 세상으로 행차해 서천꽃밭을 비운 사이 구삼신할망이 몰래 들어와 꽃을 꺾거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구삼신할망이 꽃에 해코지하면 그와 목숨이 이어진 아이들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었다. 고민하던 삼신할망은 꽃밭을 관리한 꽃감관을 두기로 작심해 인간 세상에서 황세곤간 도세곤간 사라도령을 데려왔다. 사라도령은 꽃감관이 되었지만 임신한 아내 원강아미를 두고 떠나는 터라 하루같이 시름에 잠겼다. 원강아미 또한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남편을 그리워했다. 부부의 아들 신산만산할락궁이도 머리가 곱게 되자 아버지를







찾았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서천꽃밭 꽃감관이라는 말을 들은 신산만산할락궁이는 엄청난 고난과 모험을 한 끝에 부자상봉을 이루어낸다. 모험을 떠난 사이 죽임을 당한 어머니마저 살려내어 세 사람은 서천꽃밭에서 영원히 살기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공본풀이’라는 신화로 전해 온다.

### 생명과 역병의 대결, 그 승자는?

삼신할망에게는 고민 한 가지가 더 있었다. 호구대별 상서신국마누라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닌 신이 있었는데 구삼신할망은 이에 비하면 애교 수준의 말쑥꾸러기 정도였다. 최근 1년 넘게 유행하는 팬데믹의 주범 코로나19와 같은 돌림병을 일으키는 역병의 신이어서 이름에도 천연두를 가리키는 옛말인 마누라가 붙어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을 보통 마누라라고 불렀다. 무엇보다 마누라는 혼자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홍역, 독감 등 갖은 돌림병을 일으키는 무리를 이끄는 군단의 대장이었다.

속을 앓더라도 주어진 일은 해야 해서 어느 때처럼 생불꽃을 들고 구름 사이를 날아가던 삼신할망은 생각지도 않게 마누라와 맞닥뜨렸다. 역병의 신은 대군단을 이끌고 바람을 가르는 중이었다. 삼신할망은 바빠 움직이던 터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누라가 불러세웠다. 그리고는 대장부의 행차를 가로막는다며 당장 사과하라는 것이 아닌가. 삼신할망은 화를 잠재우며 잘못했노라고 조용히 물러난 뒤 곧바로 마누라의 부인을 찾아가 아기를 갖게 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은 것일까? 아니다. 부인의 임신에 마누라는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열 달이 흐른 뒤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삼신할망이 태줄을 붙잡고 놓

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스무 달이 지나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부인은 태산같이 부풀어 오른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다. 결국, 마누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삼신할망을 찾아가 석고대죄해야만 했다. 삼신할망은 마누라로 하여금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려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부인의 출산을 허락했다. 그 뒤로 마누라는 천연두에 걸릴 아이에게는 그보다 약한 홍역을, 홍역에 걸릴 아이에게는 감기 정도만 앓게 하며 삼신할망과의 약속을 철석같이 지켰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누라본풀이’라는 신화로 전해오고 있다.

### 불도맞이와 마누라배송

삼신할망본풀이, 이공본풀이, 마누라본풀이까지 탄생, 성장, 질병의 실타래로 엮인 세 가지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제주의 곳곳에서 노래조로 불리는 살아있는 신화다. 삼신할망본풀이와 이공본풀이는 불도맞이라는 곳의 중심서사 구실을 하고 마누라본풀이는 마누라배송이라는 곳의 중심서사 구실을 한다. 제주사람들은 열다섯 살까지를 아이라고 여기며 이때까지는 삼신할망이 보호해준다고 믿어 불도맞이굿을 벌여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열다섯 살을 못 채우고 죽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도 불도맞이굿을 치르는데 이 굿은 환생을 기원하는 굿이다. 열다섯 살이 넘어서 죽은 사람은 저승차사에게 이끌려 저승을 간다. 하지만 아이들은 삼신할망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가서 자신의 목숨과 이어진 생불꽃을 되살려서 환생을 허락받는다. 이런 이유로 아이가 죽은 집안에서는 불도맞이굿을 통해 고귀한 부잣집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삼신할망께 빌고 또 비는 것이 제주의 전통이다.

마누라배송은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역병이 나돌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르거나 이미 병에 걸렸을 때 낮게 해달라며 치르는 곳이다. 마누라를 청해 병을 낮게 해달라고 빈 뒤에 대바구니에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을 넣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들이나 산에 가서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바구니를 마누라배송차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배송차룡을 받고 질병을 물리쳐준다고 믿는다.

2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19의 시대다. 시절이 이런 만큼 위의 세 가지 신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각별할 듯하다.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꽃과 이어져 있다는 신화적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존재라는 생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극심한 난개발과 기후 위기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 제주 초가의 집줄 놓기

초가는 제주만의 건축양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주초가에는 제주만의 특별함이 담겨있다. 다른 지방의 초가와와는 다른 낮은 형태의 지붕과 촘촘히 메어놓은 새끼줄이 인상적이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제주사람의 지혜와 삶의 양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바로 제주초가다.

제주초가는 돌과 진흙으로 벽을 세우고 지붕은 새(띠풀)로 덮었다. 논이 드물었던 제주에선 벼짚을 이용했던 타지방과는 달리 한라산 초원지대에서 자생하는 새로 벼짚을 대신했다. 초지에서 베어온 새를 지붕을 덮은 뒤, 새를 엮어 만든 집줄을 이용해 바둑판 모양으로 지붕을 단단히 고정했다. 유독 바람과 비가 많은 제주의 자연환경이 낳은 독특한 제주만의 초가 형태다.

글 / 사진 편집부

보통 1~2년에 한 번씩은 묵은 새를 걷어내고 지붕을 다시 덮어주는데, 제주에서는 이를 두고 ‘초집 이는 날’이라고 했다. 지붕 이는 날은 한해의 집안행사 중 매우 중요한 날이었고, 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눌음(품앗이)으로 이뤄졌고 동네 잔치날이기도 했다.

지붕을 이기 위해서는 먼저 새를 준비해야 한다. 초지에 흔히 자라는 새는 마소가 좋아하는 탓에 지붕을 이기 위한 새를 마련하기 위해선 웃드르(중산간 지역)의 밭에 가두어 키웠다가 베어오거나, 돈을 주고 사 오기도 했다. 새는 미리 베어, 같은 길이로 가지런히 묶어 각단을 만들어 쌓고, 집 이는 날까지 잘 말려주었다가 사용했다.



지붕에 얹은 새를 고정하기 위해 엮어놓은 굵은 줄을 '집줄'이라고 했고, 집줄을 엮는 것을 '집줄 놓는다'고 했다. 가을걷이를 마친 집에선 날을 봐서 집줄을 놓았다. 집줄을 놓기 위해선 최소 너댓명의 이상의 사람이 종일 걸리는 일이기에 보통은 같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수놓음으로 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한 데 어울린 탓에 집줄 놓은 집 주인은 소소한 반찬이지만 먹을 것을 준비해 대접했고, 막걸리 한 대접에 동네잔치로 이어지곤 했다.

집줄을 놓을 때 사용하던 기구를 '호랭이'라고 부르는데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각단을 놓고 앉아서 계속해서 새(띠)로 줄을 뽑아주면 동네 삼촌들이나 아이들이 호랭이를 뱅뱅 돌리면서 뒷걸음질로 집줄을 놓았다. 한번 엮은 집줄은 외줄로 굵기와 강도가 약해, 다시 두 개의 외줄을 '뒤치기'라는 기구에 걸고 호랭이를 이용해 꼬아야 집을 이는 데 사용하는 제대로 된 집줄이 된다. 집줄의 길이와 개수는 지붕의 크기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보통은 긴 가로줄은 20개, 짧은 세로줄은 30개 정도가 필요했다.

새 지붕 얹는 날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했다. 1년 이상 묵은 한 집줄은 잘라버린 후, 지붕 이를 장정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새를 각단째 지붕 위로 던져 준다. 각단을 풀어 밑에서부터 위로 새로운 새를 지붕을 덮으면서 긴 줄 작은 줄 어긋나게 묶어주며 지붕을 이어간다.

요즘은 제주도에서도 집줄을 놓거나 초집 이는 풍경을 볼 일이 극히 드물다. 제주초가를 보존하며 실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읍민속마을이나 옛날 제주의 전통 초가를 재현해 놓은 돌문화공원 또는 제주민속촌 초가마을에서 가면 연초에 간혹 볼 수 있을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제주들불축제 사전행사로 집줄놓기 경연대회가 매년 열리기도 했지만, 작년과 올해, 행사 취소와 비대면 행사 등으로 그마저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고 말았다. 많은 것을 멈추고 포기해야 하는 뜻밖의 상황이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도 이겨내고 가장 제주다운 제주초가의 전통과 명맥 또한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며 계승되길 기대해본다. 🍷



① 지붕일기 ©제주민속촌

② 집줄놓기 뒤치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콘텐츠

③ 집줄놓기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콘텐츠

④ 호랭이



# 독자설문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독자설문을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열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겨울호 <드림제주21>에서 가장 좋았거나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드림제주21>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는 상품 배송 용도로만 이용되며,  
목적달성 후 파기(미 당첨자 정보 포함)합니다.  
(단, 미동의 시 선정대상자 제외)

📷 사각 라인에 맞춰 사진 촬영 후 이메일(redlight17@korea.kr)로 보내주세요(접수 마감 : 2021년 5월 31일)

## 독자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았어요



<위드코로나 시대, 제주가 바라볼 가치 5선>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고, 제주도에 자주 가지만 아직도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5선을 보여주시니 다음 여행 때는 이 코스로 가서 더욱 제주도를 느껴 보겠습니다.

사윤수 님

좋았어요



고분양태라는 문화재가 소개된 포커스 제주편이 좋았습니다. 이수자님의 바람과 글쓴이분의 바람처럼 고분양태 그 자체로 빛을 발휘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고건 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제주의 아름다운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제주살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정지(부엌) 한 구석에 세워 놓고 식기나 수저, 소량의 반찬 등을 넣어 두었던 장방형(長方形)의 2~3층 목재 용기이다. '살레'라고 한다.

잘 다듬어진 목재로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3단으로 공간을 분할했다.

칸마다 앞으로 작은 널문을 여닫게 만들었으며, 기둥 다리를 높여 바닥의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했다.

2층과 3층의 바닥에는 대나무로 엮어 짚발을 깔아놓았다. 이는 원활한 통풍을 고려한 듯하며, 한편으로는 식기에 물이 흐를 경우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한 것으로 위생적이기도 하다.